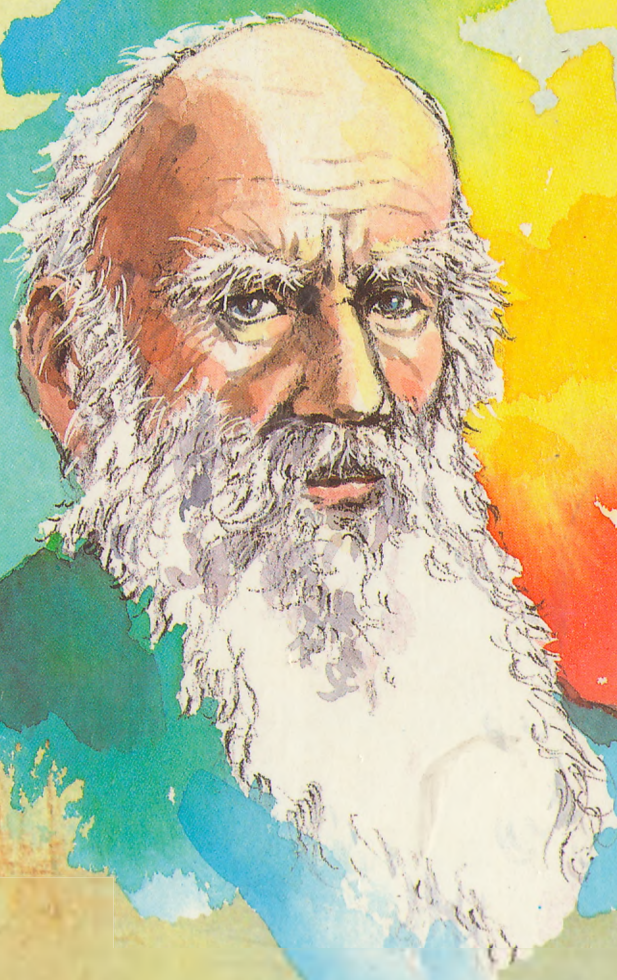


세계편 / 소년소녀 위인전기 19

톨스토이

글 장 문 평
그림 이 협





근대 교육의 창시자
5 페스탈로찌



천재 음악가
6 모짜르트



유럽을 정복한
7 나폴레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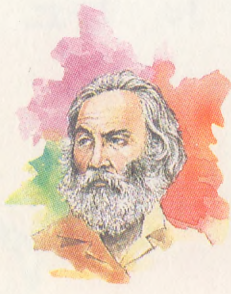
악성
8 베토벤



아프리카의 탐험가
13 리빙스턴



농민을 그린 화가
14 밀 레



민주주의의 시인
15 휘 트 먼



백의의 천사
16 나이팅게일



발명왕
21 에 디 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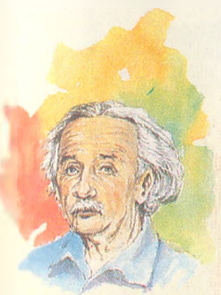
정열의 화가
22 고 호



북극 탐험가
23 난 센



중국 독립의 아버지
24 쑨 원



천재 물리학자
29 아인슈타인



여류 교육가
30 헬렌 켈러



흑인 가수
31 마리안 앤더슨



뉴우 프런티어의 가수
32 케 네 디



인류의 스승
1 | 그리스도



항해 탐험가
2 | 콜롬부스



자연 과학의 아버지
3 | 갈릴레이



근대 과학의 건설자
4 | 뉴 우 틴



가곡의 왕
9 | 슈베르트



동화의 아버지
10 | 안데르센



노예 해방의 대통령
11 | 링컨



진화론의 창시자
12 | 다윈



주기율의 창시자
17 | 파스퇴르



공상화가
18 | 파브르



러시아의 문호
19 | 톨스토이



노벨상을 낳은 과학자
20 | 노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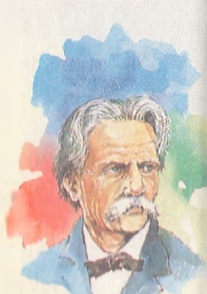
뛰어난 물리학자
25 | 퀴리 부인



비행기의 발명가
26 | 라이트 형제



인디아 독립의 아버지
27 | 간디



필립의 창자
28 | 시바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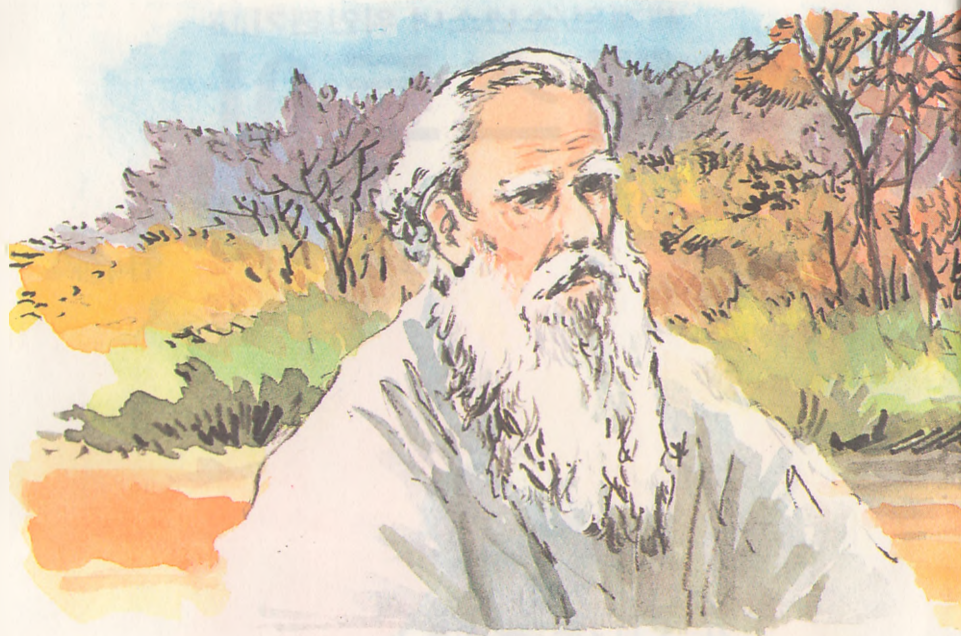
세계편/소년소녀 위인전기 19

톨스토이

글 장 문 평
그림 이 협



금성출판사



머 리 말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 소설가, 극작가입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전쟁을 미워하고, 정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문학 부문에서의 톨스토이는, 인간의 사회를 있는 그대로 그려 낸 최고의 사실주의 작가였고, 웅장하고 서사시적인 솜씨로 고대 그리이스의 호머



에 견줄 만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장편 소설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큰 소설로 유명한 《전쟁과 평화》를 비롯하여, 톨스토이의 많은 작품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읽혔고, 우리 나라에서도 20세기 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모든 인류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톨스토이의 사상은 박애주의, 또는 인도주의의 대표적 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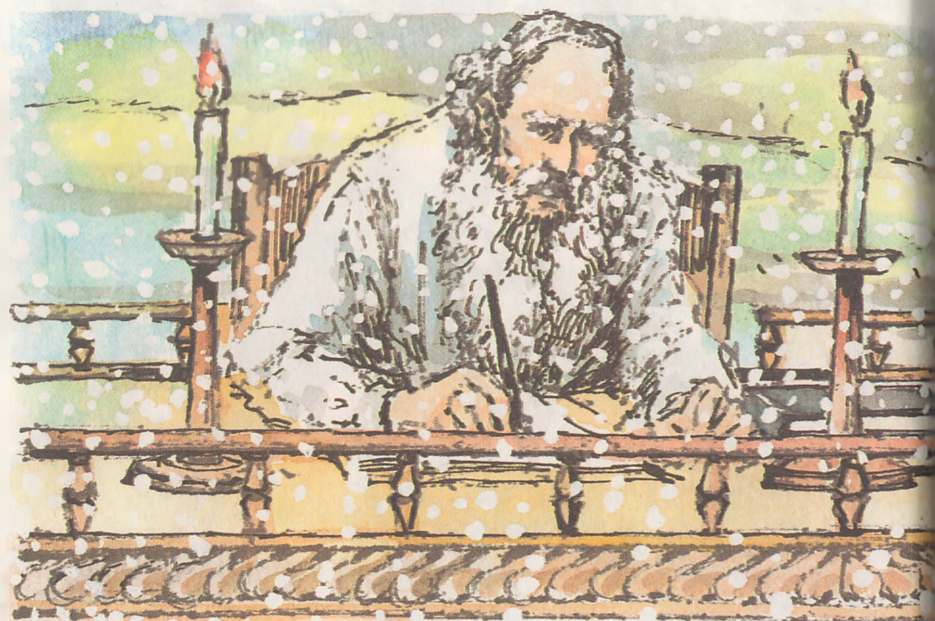
인류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기만 하는 현대일수록 그의 사상이 지니는 가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귀족들과의 교제도 끊어 버렸습니다.

(본문 120 페이지에서)





차 레

머리말	2
늙은 말에게 용서를 비는 소년	8
야스나야 폴리야나	13
잇달은 슬픔	20
거짓 참회	34
카잔 대학생이 된 톨스토이	46
카프카즈에서 꽃피운 천재	56
포성 속에서 쓴 작품들	65



유럽을 여행하다.....	76
농민 학교를 세우다.....	88
찬란한 문학 시대.....	100
땀 흘려 빵을 얻으라 !.....	109
야스나야 폴리야나의 성자.....	121
가정 불화.....	132
톨스토이의 가출.....	141
해 설.....	154
연 표.....	158
■ 학습 인명 사전.....	161



늙은 말에게 용서를 비는 소년

그날 따라 마장에는 말이 한 필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름을 오노로크라고 하는 말인데 늙은 말이었습니다.

늙은 말 오노로크는 지금 번갈아 세 소년을 태우고 언덕을 달려서 오르내렸기 때문에, 숨이 차서 ‘후후’하고 콧숨을 몰아쉬며 땀을 흠뻑 흘리고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닐곱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기진맥진한 오노로크 잔등에 올라타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고 물결
처럼 출렁이는 배를 건어
차며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늙은 말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화가 난 듯 발로 걸어차며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도 늙은 말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이제는 정말 더 못 참겠다는 듯 조그마한 손에 채찍을 쥐고는 사정 없이 후려갈겼읍니다. 그래도 늙은 말은 콧숨만 가쁘게 몰아쉴 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채찍이 딱 부러졌읍니다. 소년은 저만치서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조련사(調練師 : 말·개·원숭이 등 동물을 길들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읍니다.

“다른 채찍을 주श्य요. 좀더 굵은 것으로요!”



그러자 조련사가 가까이 다가오며,

“도련님, 다음에 타세요. 말을 너무 그렇게 구박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채찍을 빌려 주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도 타지 못했는걸요. 나도 형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요.”

“도련님은 인정도 없군요. 형님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늙은 말을 타겠다는 건가요? 이 말은 스무 살도 넘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팔십 노인과 똑 같습니다. 마치 피멘처럼 다 늙은 노인이랍니다. 만일 도련님이 피멘의 등에 올라앉아 채찍으로 때리면서 빨리 가자고 해 보세요. 도련님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피멘은 소년의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노인입니다.

소년은, 허리가 활처럼 너무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서야 간신히 움직이는 피멘을 생각했습니다.

어린 소년은 그제서야 문득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듯 말에서 내리더니,



가만히 오노로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오노로크는 배를 출렁거리며 콧구멍을 한껏 벌리고, 괴로운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오노로크는 꼬리를 흔들 힘조차 없는지 간신히 흐느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린 소년은 오노로크가 얼마나 괴로와하고 있는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소년은 두 눈에 눈물이 뒹얼굴을 오노로크의 뺨에 비벼 대며 말했습니다.

“오노로크야, 잘못했어. 내가 널 너무 못 살게 굴었지? 용서해 줘.”





그 후부터, 이 어린 소년은 평생을 통해 말을 못 살게 구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이 말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면 얼굴빛이 변하며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레프야, 이제 그만 가자.”

그 때, 세 소년 중에서 제일 맏형인 듯한 소년이 오 노로크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어린 소년을 불렀습니다.

레프라고 불린 소년은 아직도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형들인 듯한 세 소년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늙은 말에게 용서를 빈 레프라는 이 어린 소년이 훗날 위대한 작가요, 사상가가 된 톨스토이입니다.



야스나야 폴리야나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일(러시아 달력), 모스크바에서 200킬로미터 남쪽으로 떨어진 톨라 현의 야스나야 폴리야나에서 태어났습니다.

톨라 현에서 20킬로미터쯤 남쪽으로 더 가면 숲이 우거진 마을이 나옵니다. 그 우거진 숲 속에 흰 문 기둥이 서 있고, 그 입구에서 비좁은 사과나무 발 사잇길로 따라 들어가면 흰색의 커다란 2층집이 나옵니다. 이 저택이 지금은 <야스나야 폴리야나 박물관>이라 불리고 있는데, 레프 톨스토이가 태어난 곳입니다.

톨스토이 가의 영지인 광대한 야스나야 폴리야나의 풍경





야스나야 폴리야나의 톨스토이 저택

레프 톨스토이는 이 저택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생애를 이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집에 야스나야 폴리야나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위대한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그를 기리기 위해 그가 살던 옛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방에는 지금도 톨스토이가 쓰던 책상과 2개의 침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나는 여기 이 소파 위에서 태어났다.’

라고 톨스토이가 늘 말하던 검은 가죽을 씌운 소파가 옛 모습 그대로 책상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스나야 폴리야나 박물관이란, 다시 말해서 <톨스토이 기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스나야 폴리야나란, 러시아 말로 <밝은 초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숲은

러시아 특유의 그 음침한 숲과는 달리 이상할만큼 밝은 곳입니다.

또, 야스나야 폴리야나는 그 이름이 뜻하고 있는 것처럼, 톨스토이가 작가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부터는 러시아의 모든 국민들과, 나아가서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 주는 <밝은 초원>이 되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태어난 1828년은 지금의 소련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90여 년 전인 제정 러시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황제가 다스렸고, 그 밑에는 백작과 공작 같은 귀족 계급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 집안에도 할아버지 가운데 백작의 작위를 가진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야스나야 폴리야나 저택을 <백작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토록 유복한 귀족 집안에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어머니는 귀족의 딸로 꾸밈이 없는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세상 평판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들려 주는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이 야스나야 폴리야나의 저택과 주변의 농장도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결혼 지참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레프 톨스토이가 두 살 때 누이동생인 마리아를 낳고는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톨스토이 집안에는 아직 나이 어린 큰형 니콜라이를 비롯하여 세르게이, 드미트리 등 세 형과 레프 톨스토이, 그리고 누이동생 마리아가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레프 톨스토이는 초상화 한 장도 남겨 놓지 않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의 슬픔이 얼마나 컸었던지 훗날 그가 성장한 뒤에도,

“내가 괴로웠을 때, 어머니의 그 따사로운 미소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슬픔을 잊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유년 시대》라는 그의 자서전적인 소설에서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톨스토이 집에는 먼 친척뻘인 타치아나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 5 남매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레프의 긴 일생 동안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이 타치아나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5 남매는 타치아나 아주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며 따랐고, 타치아나 아주머니는 이들에게 사랑이란 깊고 넓은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큰형인 니콜라이가 열 살이고, 레프가 아직 다섯 살도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5 남매 가운데서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큰형 니콜라이가 동생들에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너희들 개미 형제 놀이 안 할래? 하고 싶은 사람

은 집에 들어가서 의자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

잠시 후, 어린 5 남매는 목에 푸른 심줄을 돈우고 얼굴이 빨갛게 된 채 끙끙거리며 의자를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다.

“애들아, 내가 지금부터 아주 멋진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봐. 만약 이 비밀이 밝혀지면 세상 사람들은 병든 사람도 없게 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없게 되며, 싫은 것도 없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가 좋은 <개미 형제>가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되게 해 주는 비밀을 초록색 막대기에 써서 건너편 숲 속에 묻어 놓았어!”

그리고는 의자를 맞대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보자기를 씌우고서 어두컴컴한 보자기 안에 들어가 서로 어깨를 껴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깨를 껴안고 앉아 있으면, 새 소리도 들려 오고 마차를 끌고 달리는 말방울 소리도 들려 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운데 특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무슨 소리가 들리지?”

큰형인 니콜라이가 어깨를 껴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응, 들려.”



레프는 영문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말이야, 인생의 소리라는 거야. 이렇게 모두 마음을 합치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괴로운 사람 들이 한숨짓는 소리가 잘 들리게 돼.”

어린 레프 톨스토이는 큰형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록색 막대기에 비밀을 써서 묻어 둔 거야. 너희들이 약속만 지켜 준다면 그 막대기를 보여 줄게.”

“약속이란 게 뭔데?”

“응, 그 약속이란 건 말이야 간단해. 첫째, 방 구석에 서서 흰 꿈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 밖에도 형이 말하는 약속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레프 톨스토이는 방에 들어가서 구석에만 서면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써도 자꾸 흰 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큰형에게 그 비밀의 초록색 막대기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없었던 레프는,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하든지 그 초록색 막대기를 찾아 내어 모든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미 형제 놀이가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레프 톨스토이는 훨씬 뒷날까지 그 초록색 막대기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으며, 자기가 죽으면 초록색 막대기가 묻혀 있는 곳에 묻어 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잇달은 슬픔

레프네는 백작 집안이었기 때문에, 야스나야 폴리야나 저택에는 항상 30여 명에 달하는 하인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톨스토이네 집안의 땅을 경작하는 수많은 농노(노예 신분의 농민)들이 있었고, 그 무렵 귀족들의 교육이 그러하듯, 이 집 5 남매를



가르치기 위한 가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백작 집에는 항상 이상한 차림새를 한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묵어 가곤 했습니다.

이들 순례자들 가운데는 성경의 시편을 읊조리며 지내는 여자 순례자라든가, 남루한 행색으로 예언을 하며 늘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리샤라는 노인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타치아나 아주머니가 고귀한 영혼을 지닌 순례자들과 이야기하기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치아나 아주머니의 깊은 사랑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레프는 아홉 살이
되었을 때, 모스크바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
습니다.



그것은 큰형인 니콜라이와 둘째 형인 세르게이의 공부를 위해서, 할머니가 계시는 모스크바로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레프네 5 남매는 아버지를 따라 토끼사냥을 갔습니다. 하인들이 산비탈에서 산토끼를 몰아오면, 사냥개들을 풀어 놓아 도망치는 산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레프도 사냥개 한 마리를 끌고서 후미진 곳에 숨어 있었으나, 숨씨가 서툴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그들 5 남매가 한 마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사냥터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몬드 별장 앞을 지날 때,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레프네 5 남매가 탄 마차 앞에서 달려가던 베루파라는 개가 농부들 소유인 여러 마리의 개들에게 쫓겨 갑자기 마차 밑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개갱개갱!”

베루파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른들은 개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베루파를 마차 밑



에서 끌어 내 들여다보고는 그네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지?”

“한 쪽 다리가 마차바퀴에 깔려 으스러져 버렸으니, 이제 사냥은 영영 못 하게 되었군 그래.”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여 버리지. 말이 난 김에 지금 해 치워 버리세.”

레프 톨스토이는 어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루파를 꼭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 절름발이로 살려 두면 안 되는 것일까?’

레프 톨스토이는,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레프는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 참견할 수는 없었지만, 마차 안에서 자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마부인 그지마가 지배인에게 채찍으로 몹시 얻어 맞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노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날에 고기를 먹었다고 하여, 지배인이 그 농노를 군대로 쫓아 보내 버린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른들은 왜 그런 참혹한 일을 할까?’

어린 레프로서는 어른들이 왜 그토록 잔인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동안, 레프는 어른들을 믿지 않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레프네 가족이 모스크바로 이사를 간 것은 소슬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주름투성이에
불이 폭 꺼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차츰 모스크바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니콜라이와 세
르게이는 대학에 들어갈 준비로 가정 교사에게 가르침
을 받기 시작했고, 세째 형인 드미트리와 레프, 그리고
마리아는 할머니의 따사로운 보살핌 속에서 외로움을
잊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레프에게 천재적인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벌써 사람으로서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일,
또는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 등을 곰곰히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형들은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왜 나 자신만은 빠끔한 눈에 납작코일까 하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아니야. 레프의 얼굴은 아주 영리하게 생겼어.”

레프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레프의 고민은 씻은 듯이 사라졌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레프의 어린 가슴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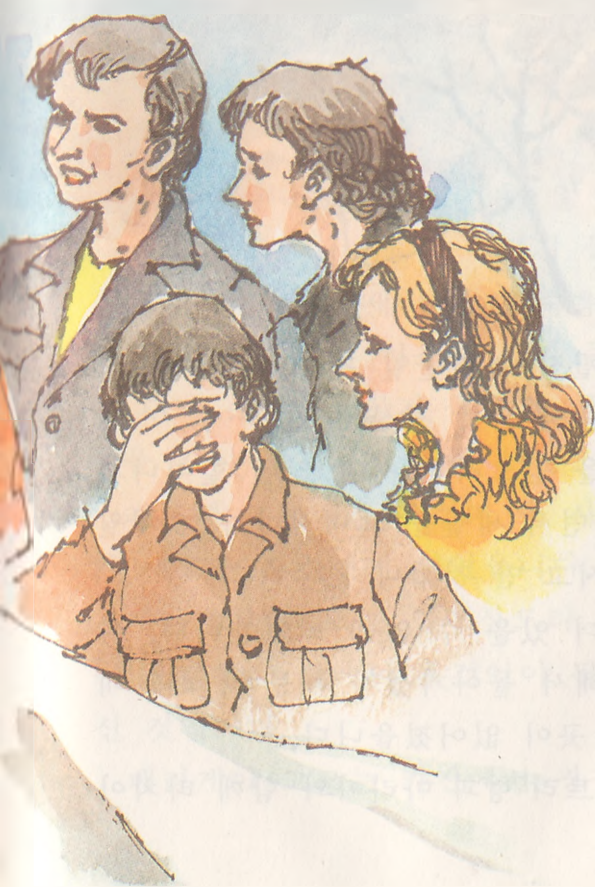
레프에게 커다란 슬픔을 몰고 온 것은 그가 아홉 살 되던 1837년, 그러니까 모스크바로 이사 온 지 1년도 채 안 된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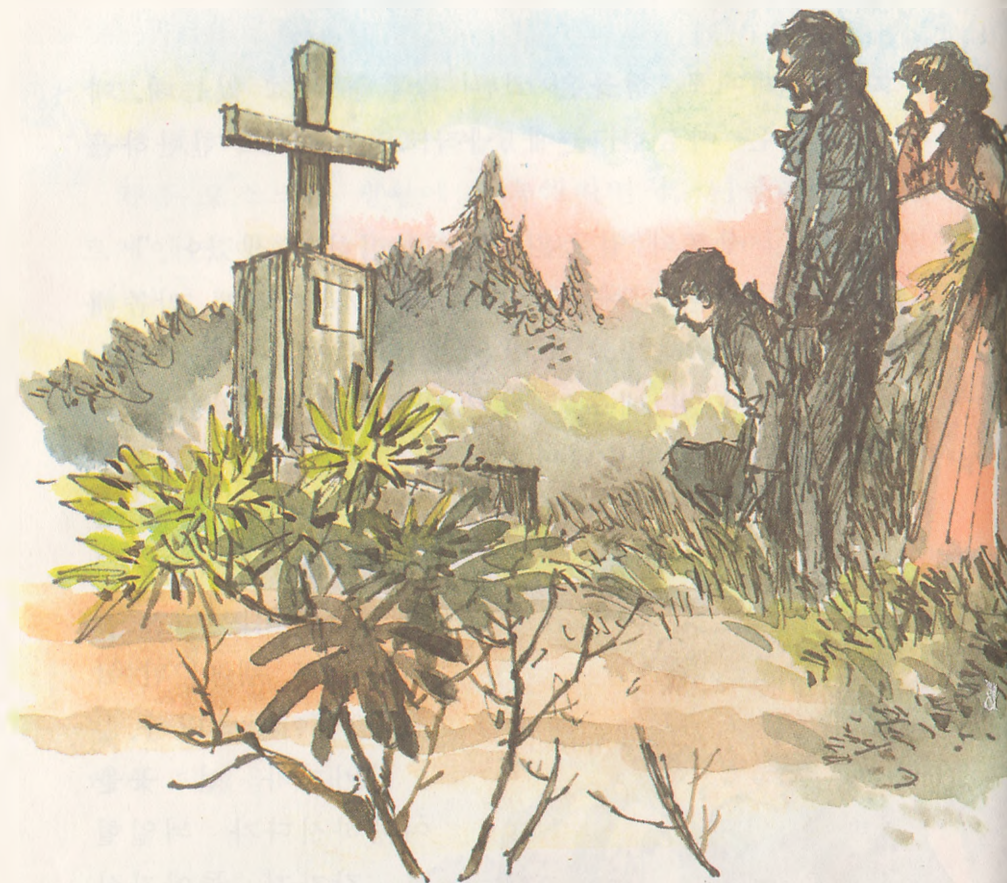
아버지가 먼 곳을 여행하시다가 뇌일혈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레프네 5 남매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말로, 참말로 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나? 아니지?”





아닐 게다. 그것은 필시 거짓말일 게야. 그렇게 착한 사람이 땅 속에 묻히다니, 세상에 원…….”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믿으려 하시지 않던 할머니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울면서 세월을 보내시다가, 6 개월도 채 못 되어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이제 모스크바에도 더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레프네 5 남매는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레프는 드미트리 형과 마리아와 함께 타치아



나 아주머니가 계시는 야스
나야 폴리야나로 돌아가고,
큰형인 니콜라이와 둘째 형
인 세르게이는 새로 후견인
(後見人: 나이 어린 사람의
모든 문제를 보살피 주는 사
람)이 된 알렉산드라 고모와
함께 모스크바에 남아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
나지 않았습니다. 1841년, 이
외로운 5 남매의 후견인이
된 알렉산드라 고모마저 갑
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세 사람의 죽음은, 이제 소년기로 접
어든 레프의 어린 마음에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의문
을 던져 주었고, 삶과 죽음과 종교라는 것에 대한 관
계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레프네 5 남매를 보살피 줄 사람으로 페라게야 고모
가 새로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페라게야 고모는 알렉산드라 고모의 동생이었는데,
이 불행한 5 남매의 후견인이 될 것을 선뜻 승낙해 주
신 것입니다.

페라게야 고모는 카잔에서 굉장한 지주로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고모가 살고 있는 카잔은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유명한 볼가 강이 흐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레프가 열 세 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카잔의 페라게야 고모가 야스나야 폴리야나에 남아 있는 톨스토이 집안의 3 남매를 데리러 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던 큰형 니콜라이와 둘째 형 세르게이는 이미 카잔 대학으로 전학을 한 뒤였기 때문에, 야스나야 폴리야나에 있는 3 남매만 카잔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레프에게는 한 가지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레프네 5 남매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대신 자기들을 길러 주시던 타치아나 아주머니가 카잔으로 같이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윈 레프 톨스토이는 애정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타치아나 아주머니가 함께 카잔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프뿐만 아니라, 다른 4 남매들도 깜짝 놀라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들 5 남매는 차라리 타치아나 아주머니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타치아나 아주머니는 레프네 5 남매가 야스나야 폴리야나를 떠나기 전에, 아주머니의 동생한테 다녀오시켰다면서 레프네 5 남매와 작별을 하고 야스나야 폴리

야나를 떠났습니다. 작별은 슬펐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흥분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날부터 야스나야 폴리야나는 마을 전체가 이삿짐
을 꾸리느라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야나에 있던 레프네 3 남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 백작 집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양복 만드는 사람, 집안의 구두를 짓는 사람, 말의 쇠장식이나 열쇠 같은 것을 고치는 사람, 그리고 톨스토이 집안의 아이들과 상대가 되어 놀아 줄 같은 또래의 농노 아이들과 많은 하인들이 톨스토이 백작의 5 남매를 위해 카잔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며칠 간에 걸쳐 꾸린, 굉장히 많은 이삿짐이 마차에



실렸습니다. 그리고는 긴 대열을 지은 톨스토이 백작
집의 마차 행렬은, 그로부터 며칠 동안의 긴 여행 끝에
카잔에 도착했습니다.

볼가 강이 흐르는 카잔은 숲으로 덮인 아름다운 도
시였습니다.

큰형 니콜라이는 벌써 카잔 대학으로 전학하여, 푸른
깃이 달린 제복에 단검을 허리에 찬 멋있는 모습을 하
고 있었습니다.



거짓 참회

레프는 멋진 제복을 입은 큰형 니콜라이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빨리 대학생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읍니다.

2년 후, 세째 형인 드미트리도 카잔 대학 수학과에 들어갔읍니다.

이제, 레프도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레프는 무엇보다도 외교관이 되고 싶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 말을 열심히 공부하여 동양어 학과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양어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라비아 어와 터어키 어, 타타르(만주 북쪽에 위치한 소련령) 어, 라틴 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의 러시아의 귀족 자제들은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선생님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공부했읍니다. 그 때문에, 톨스토이도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하루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공부했읍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열 여섯 살이 된 어느 날, 그 날도 그는 칠판에 백묵으로 썼다가는 지우고, 또 썼다가는 지우고 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 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읍니다.

“도련님, 신부님이 오셨어요!”

하인이 문 밖에서
외쳤읍니다.

“아 참, 오늘은 신
부님에게 참회하
는 날이지?”

레프는 그제서야
오늘이 신부님에게
정기적으로 참회하
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참회
할 일을 생각했읍니
다. 참회란 신부 앞
에서, 나쁜 짓을 한
것을 모두 말하고,
신에게 용서를 받는
일을 말합니다.

한참 방 안을 거
닐던 레프 톨스토이
는 고개를 가우뚱하
며 중얼거렸읍니다.

“이런 일까지 신
부님에게 고백하
면 신부님이 웃으
실 거야.”



그 무렵, 레프 톨스토이에게는 가정 교사의 딸인 카
텐카가 이 다음 자기의 결혼 상대자가 될 것 같은 생
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텐카에게 누가 실례되는 짓을 하면 그
냥 봐 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신부님에게 고백하면 신부님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인이
올라와서

빨리 내려오라는
전갈을 하고 갔읍니다.

아래층에는 모두 모여 있었읍니다.

신부님이 기도를 마치고 엄숙하게 말했읍니다.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을 신에게 모두 고백하고 용
서를 받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이 벌
을 내리실 겁니다.”

고모부와 고모부터 옆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갔습니다. 레프는 제일 나중에 들어갔으므로 그의 차례는 카텐카 다음이었습니다.

카텐카가 옆방에서 얼굴을 붉히며 나왔습니다. 카텐카의 그런 모습을 본 레프 톨스토이의 가슴은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레프는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신부에게 고백했습니다. 페라게야 고모댁에 온 뒤로는 어쩐지 우울하다는 것과, 어른들이 무도회나 바깥 일로 외출을 자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으며, 그 때마다 가정 교사가 주인 자리에 앉는 것에 비위가 상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회를 마치고 나온 그는 마음이 맑아야 할 텐데도 어쩐지 개운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 날 밤,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는 곰곰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을 깜박이며 생각에 잠겼던 그는

“내가 잘못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낮에 내가 한 나쁜 일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욕만 했어.’

레프는 낮의 일을 반성했습니다.

‘아마 신부님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나는 신에게 벌을 받을 거야. 아마 벼락을 맞아 죽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레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하인이 손질도 안 해 놓은 옷을 입고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이나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맑은편 언덕 위로 러시아의 게으른 봄

의 태양이 간신히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멀리서 마차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레프는 마차를 세웠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직 말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샴을 좀 더 주셔야 합니다.”

하고 마부가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낯선 신부가 레프를 맞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찾아온 소년 레프를 보고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무슨 볼일인가요?”

레프가 어제 집에서 참회를 한 신부를 찾자, 뒤꼍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제의 신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찾아왔지?”

“사실은 어저께 참회를 할 때 거짓 참회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제 잘못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오, 착한 소년으로군.”

신부가 부드럽게 말하면서 인자한 얼굴로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부끄러워서 망설이고 있던, 카텐카에 관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레프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신부는, 엄숙하고도 힘 있는 목소리로 레프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레프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교



회를 나올 때는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까 타고 왔던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레프는 마차를 타고 오면서도 아까 신부가 칭찬해 주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쯤, 신부님은 저 톨스토이 백작 댁의 네째 아들은 착한 소년이고, 그런 소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마치 고무풍선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을 누구에게든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새벽에 교회에 갔는지 아세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아나요?”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श्य요.”

“글쎄요. 아마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명복을 기도드리기 위해 가셨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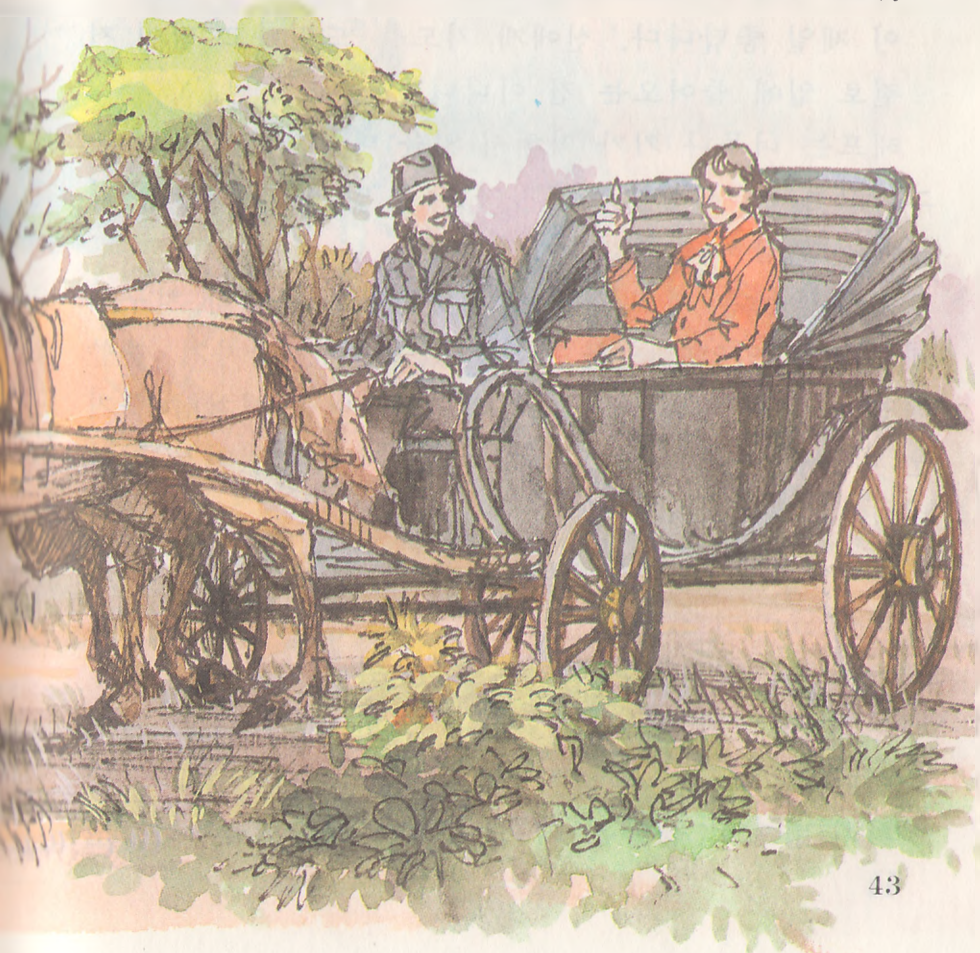
“그렇지 않아요!”

레프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듯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
니다.

조금 뒤, 레프는 늙은 마부에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늙은 마부도 신부님처럼 칭찬해 줄 거야.’

하고 혼자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마부의 말은 너무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야 귀족님네들이나 하는 일이지요, 도련님.”
마부는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레프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나요?”

“그런 일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실없는 짓을 합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 아픈 허리를 눕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밥이 저절로 입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도련님.”

레프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고 만 듯한 쓸쓸한 기분으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레프 톨스토이는 큰형과 큰형의 친구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쓸쓸해진 마음을 털어 버리고, 교회에서 나올 때처럼 즐거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걸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레프네 집에서 잔 큰형의 친구가 히죽히죽 웃으면서,

“레프야, 대관절 신이라는 것이 있니?”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레프는 그만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레프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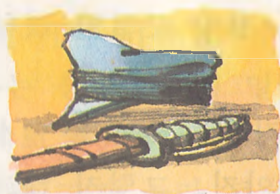
약 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일 것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전부가 모르는 것뿐이잖아?”

레프는 중얼거리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듯, 그에게 훌륭한 신앙의 씨앗을 뿌려 준 것은 다름 아닌 페라게야 고모였습니다.





카잔 대학생이 된 톨스토이

그 해 봄에 레프 톨스토이는 카잔 대학의 입학 시험을 치렀으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귀족이라면 누구나 프랑스 말을 즐겨 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레프 톨스토이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 교사에게서 도이칠란트 어와 프랑스어를 배운 덕으로 이 두 과목은 성적이 매우 좋았으며, 나머지 어학과 신학, 문학, 수학의 성적도 좋은 편이었으나 역사, 지리, 라틴어의 성적이 나빠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가을에 있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야스나야 폴리야나 박물관에 남아 있는 톨스토이 서재



떨어졌습니다. 실망한
톨스토이는 학장을 찾
아가 다시 한 번 시험
을 보게 해 달라고 간
청하여, 세 번째 가서
야 간신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 방학이
되자, 푸른 제복에 금
빛 나는 단검을 차고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타치아나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
니는 대학생이 된 톨
스토이가 너무나 자랑
스러워 찢끔거리며 눈
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토록 바라던 대학이
였지만, 점점 공부에
대한 열의가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갔
을 때는 선생님도 감
짝 놀랄 만큼 열심히



공부했지만, 외는 공부만을 시키는 학교 공부에 대해 톨스토이는 차츰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외는 대신, 그 나름대로 학교 공부를 앞질러서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교 공부는 점점 더 싱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학교의 규칙은 너무 까다롭고 융통했으며, 모든 공부는 외는 것뿐이어서 날이 갈수록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공부에 열의가 없어지자, 톨스토이의 학교 성적은 아주 나빠져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그만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격렬한 성격을 지닌 톨





스토이는 그까짓 시시한 대학은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큰형 니콜라이가 카잔 대학을 졸업할 때, 톨스토이는 자신의 퇴학계를 학교에 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 거짓으로 참회했던 것을 참회하기 위해 새벽 교회에 갔다 오던 날, 톨스토이를 빈정거렸던 큰형의 친구인 드브코프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신 같은 것은 없다고 하셨죠?”

“그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때부터 나는 열심히 생각했지요. 신은 반드시 있다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바빠요. 부자나 귀족들은 자

신들에게 알맞도록 신을 생각하면서 신을 앞세우고
놀이만 해요. 또, 신부들은 버젓이 거짓말을 하면서
신의 참된 모습을 숨기며, 심지어는 신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그 날 새
벽의 마부처럼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의 참
다운 모습을 깨우쳐 주겠다고 말이에요.”

드브코프는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니콜라이 군, 레프는 이 다음에 대단한 학자가 되겠
어. 그러니 저런 곰팡내 나는 대학 따위가 재미있을
리 없지.”



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큰형 니콜라이도 톨스토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레프는 그런 애야. 틀림없이 대학자가 아니면, 위
대한 작가가 될 걸세. 우리처럼 시시한 관리 따위는
되지 않을 테니 두고 보게나.”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무렵, 큰형 니콜라이는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정부의 관리가 되어 있었습
니다.

“참, 레프야!”

잠시 후, 니콜라이는 톨스토이에게 편지 한 통을 내
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타치아
나 아주머니가 부상을
당하셨단다. 그래서 나는
내일 야스나야 폴리야나
에 다녀올 작정이다.”

“형, 저도 같이 가겠어
요.”

형의 말을 듣고 있던 톨
스토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이젠 대학도 도회지도
귀족도 교회도 모두 싫
어졌어요. 모두들 겉으로
만 번지르르하게 거짓말
만 하는 게 싫어졌어요.



난 시골로 돌아가서 참된 인생을 공부하며, 가난과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의 농부들을 위해 일해 보겠어요.”

“그게 참말이나?”

니콜라이도 처음에는 놀랐으나 곧,

“그것도 좋겠지. 더구나 야스나야 폴리야나는 레프의 소유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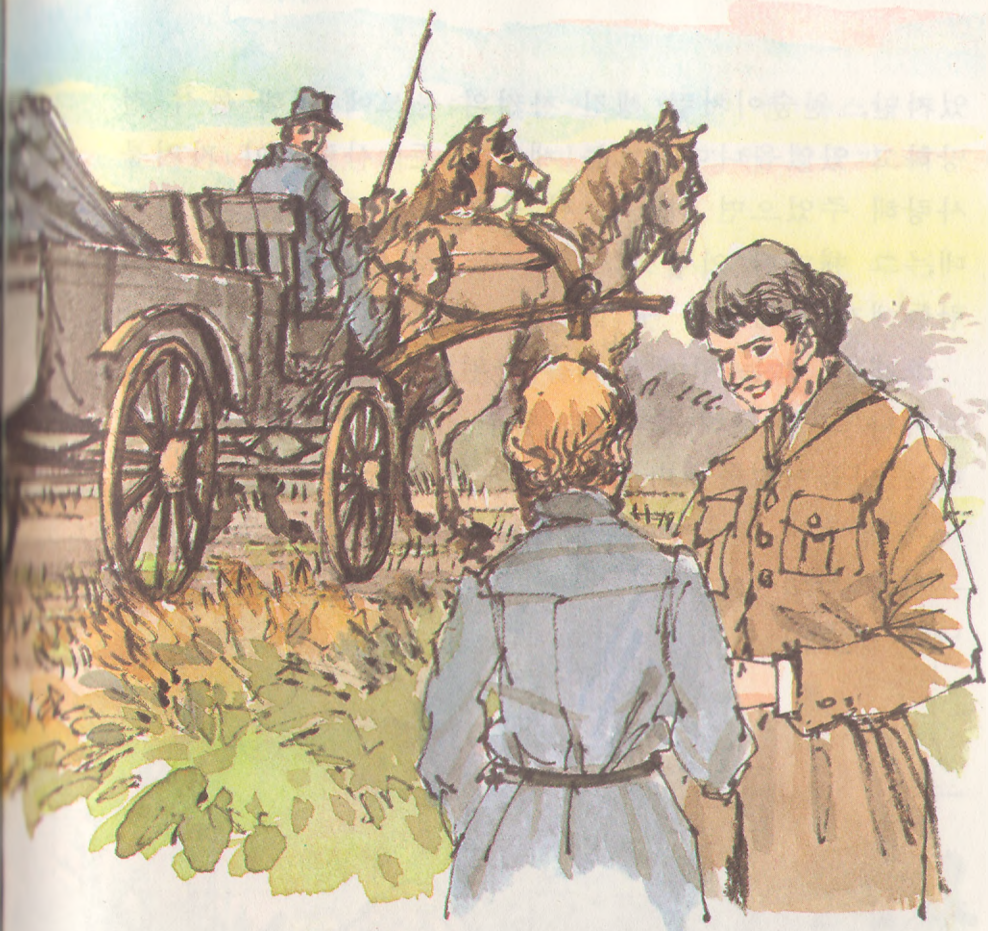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집안의 재산을 분배할 때, 야스나야 폴리야나는 레프 톨스토이의 소유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프 톨스토이는 큰형 니콜라이를 따라 고향으로 가는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6년 전, 카잔으로 올 때는 꿈이 컸던 톨스토이였지만, 그 꿈의 하나이던 카잔 대학도, 도시의 생활도, 귀족들의 무도회도, 금빛 탑이 위엄 있게 서 있을 교회도 모두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한 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톨스토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선 연극에도 참가했으며, 자기의 마차를 판 돈을 가난한 사람에





게 주려고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는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신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규칙>이란 것을 써 놓고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최고도의 완성 단계에 이르도록 노력하자고 맹세했지만, 의지가 약한 톨스토이는 자기 마음과는 달리 어느 새 타락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언젠가 어렸을 때에도 고민한 일이 있

었지만, 원숭이처럼 생긴 자기의 용모에 대해 몹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곤 했었는데, 그 때마다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몹시 타락된 생활을 했었으나, 그 때마다 그를 구해 준 것은 참된 성실성이었으며, 반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오면서 싱그러운 흙냄새를 맡자, 그러한 모든 절망감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형, 나는 역시 시골이 맞는가 봐요. 이젠 야스나야 폴리야나를 떠나지 않고 농민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해요.”

그는 진정 농민들을 도와 주고 그들을 가르쳐 주는 교육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꼭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도 열 아홉 살이었습니다.





카프카즈에서

꽃 피운 천재

야스나야 폴리야나에 돌아온 젊은 지주 톨스토이는 그 곳에 있는 농노들을 도와 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노들에게 자유를 줄 것과, 공부를 가르쳐 주며 자기 자신도 검소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생각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처럼 한 사람의 농노도 자유로와지지 않았으며 행복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톨스토이의 그러한 생각을 오히려 농노들 자신이 따르지 않고 반대하거나 비웃었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톨스토이는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농노들에 앞장 서서 스스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농사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어서 새로운 농사법을 시도하기 위하여 기계를 사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농노들은 더욱 게으름을 피우며,

“주인 나리는 우리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주인 나리가 저렇게 나설 일이 아닌데 말이야.”



하면서 술선 수범하는 톨스토이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농노들은 옛 방식대로의 농사법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와 같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에 점점 실망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한가로와지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시골 구석에 멍청하게 처박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바보스러워 보여, 안절부절 못 하다가 모스크바에 가서 법률 시험을 봤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을 졸업한 것과 똑같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톨스토이는 다행히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그는 점점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올 때의 결심을 잊고 있었읍니다. 자기의 결심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기는 커녕 점점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어 갔읍니다.



도회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며 세월을 보내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공작 부인들이 모이는 살롱에서 시를 읊조리며 가장 멋있는 귀족이 되려고 애쓰기도 했고, 어떤 때는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종된 생활을 3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날로 절망감에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더욱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린 톨스토이는 부질없이 보내버린 지난 3년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이제 망해 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에서의 방탕한 생활을 씻어 버리고, 4월이 되자 다시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야스나야 폴리야나에는 군대의 장교로 나가 있는 큰형 니콜라이가 휴가를 받아서 카프카즈로부터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줍음을 잘 타면서도, 엉뚱한 짓을 잘 하는 톨스토





이는 침착한 니콜라이를
무척 따랐기 때문에, 큰
형을 만나는 것이 얼마
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생활의 변화
를 가져 보자.’

톨스토이는 큰형을 보
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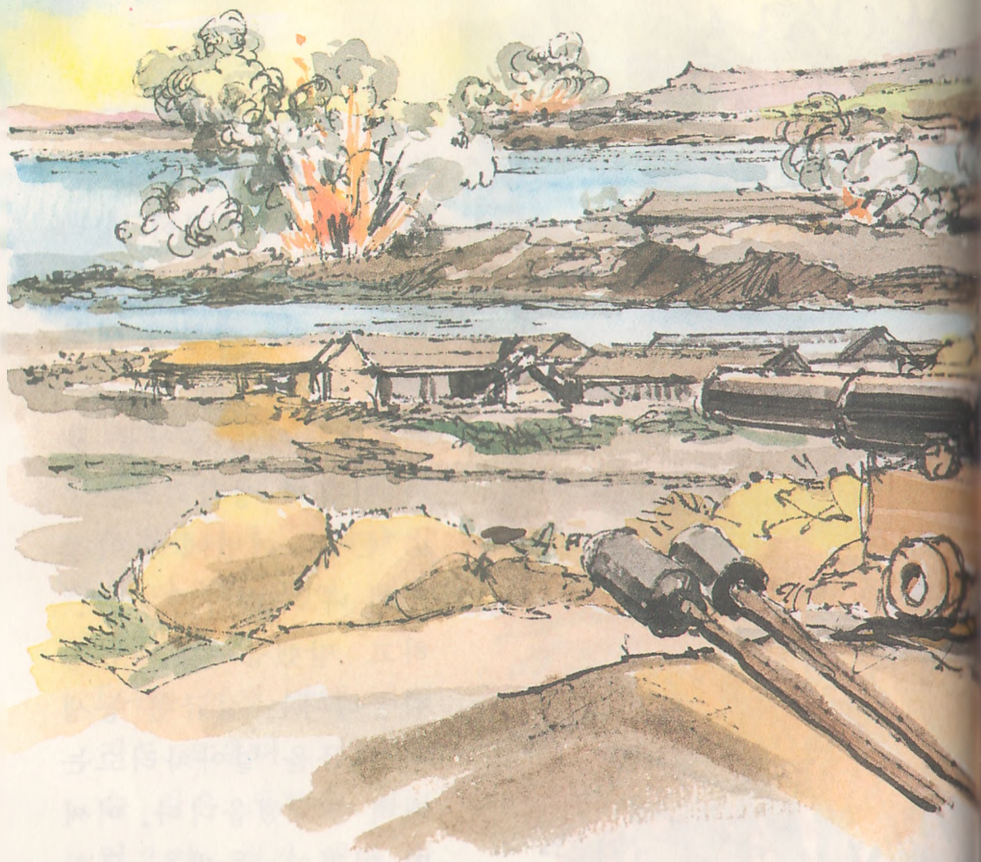
“큰형, 이번에 돌아갈
때 나도 데려가 줘요.”

하고 말했습니다. 큰형
니콜라이는 성급한 동생
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꽤히 승낙했습니다. 어찌
면 이것이 동생을 구하
는 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던 톨스토이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851년 4월, 톨스토이는 형을 따라 모스크바와 카
잔을 거쳐서 형의 근무처인 카프카즈로 갔습니다. 꼬
박 3주일이나 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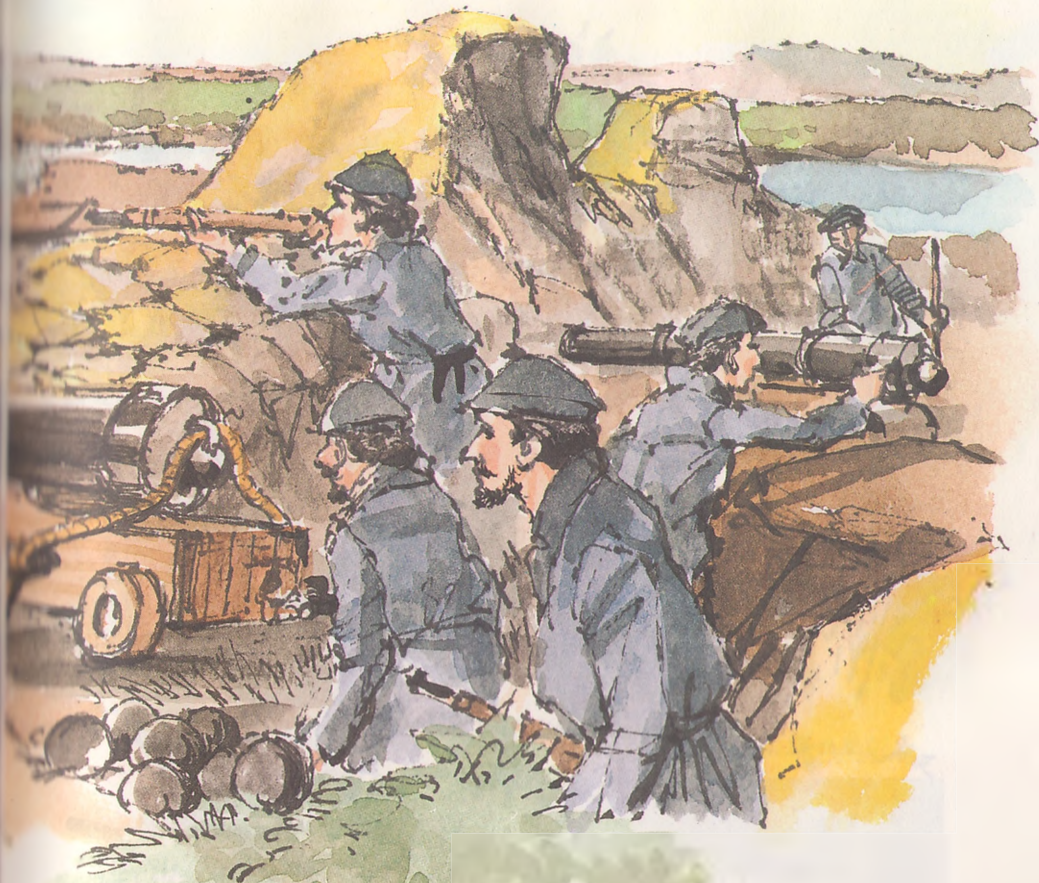
거기에서는 러시아와 타타르 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
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프카즈의 아름다운 대자연은
톨스토이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 속에 있는 악마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이 다시는 톨스토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형 니콜라이의 근무지는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 때마다 톨스토이도 이곳 저곳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 기백 있고 활발한 카자흐 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그런 것들에 조용히 어울려 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그의 마음 속에는 문학에 대한 천재성이 꽃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그의 마음 속에는 군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굳어 가서, 그 해 10월 말에는 군에 자원하여 포병 견습사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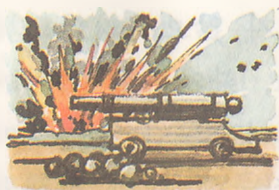
그러나, 부대로 배치될 만자마자 건강이 몹시 나빠져서, 톨스토이는 2개월 가량 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이용하여 최초의 작품인 《유년 시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지주의 아침》 《침입》 《소년 시대》를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유년 시대》는 작가로서의 길을 열어 준 그의 첫 작품으로, 많은 찬사를 받은 자서전적인 작품이었으며, 《어떤 지주의 아침》은 야스나야 폴리야나에서 경험한 전원 생활의 일부를 그린 작품입니다. 또, 《침입》은 카프카즈의 이야기로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의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었으며, 《소년 시대》는 《유년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그가 겪은 영혼의 고뇌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톨스토이의 문학에 대한 천재성은 이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카프카즈의 자연 속에서 꽃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성 속에서 쓴 작품들

톨스토이가 24세가 되던 1852년 7월, 그는 근 1년 동안이나 정성을 다해 써 온 첫 작품 《유년 시대》를 마쳤습니다. 네 차례나 원고를 고쳐 쓴 끝에 드디어 완성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토대로 《유년 시대》를 쓰면서, 《소년 시대》《청년 시대》《장년 시대》를 계속 해서 쓰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년 시대》는 이 네 작품들 중에서 가장 첫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첫 작품을 다 마친 톨스토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발행되고 있는 월간 문예지인 《현대인》이라는 잡지에 실기로 생각하고, 《현대인》의 책임자인 네크라소프에게 편지를 써서 원고와 함께 우편으로 부쳤습니다.

군 복무 시절의 톨스토이



「선생님은 저의 청을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원고를 한번 읽어 보시고, 활자화할 가치가 없다면 저에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거든, 저의 보잘것 없는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높이신 의견을 보내 주시고, 작품은 선생님의 생각대로 인쇄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이 작품은 네 시기에 걸쳐 펼쳐질 이야기 중의 첫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회답을 기다립니다.」

네크라소프에게 편지를 부친 지 한 달이 좀 지난 8월 29일, 톨스토이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답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편지는 나를 무척 기쁘게 했다.’
라고 그 때의 감동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네크라소프에게서 온 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편지는 훗날 러시아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편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잘 받았습니다. 아주 재미있기 때문에 잡지에 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후편을 보지 못해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글을 쓴 작가에게는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물론, 이 작가의 글을 쓰는 경향, 즉 소박하고도 내용의 진실함은 이 작품에 있어서 없애지 못

할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다음 원고에서 약간의 생기와 움직임만 더 붙여넣어 준다면 이 작품은 훌륭한 소설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다음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문단의 나그네가 아니라면 본명을 밝히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되어 권합니다.

엔 네크라소프。」



톨스토이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원고에 L (엘) N(엔)이라는 자기 이름의 약자를 썼던 것입니다.

네크라소프는 그 무렵 러시아 문단에서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네크라소프는 톨스토이에게 작가로서의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약속대로 《현대인》 9 월호에 《유년 시대》가 실렸습니다.

그 무렵, 누이동생인 마리아도 이미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마리아의 집으로 유명한 투르게네프가 찾아와 서는,



“훌륭한 작가가 탄생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현대인》 9월
호에 실려 있는 《유년 시대》를
읽어 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여요?”

투르게네프의 낭독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물
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기 5 남매의 어렸을 때 이야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엘 엔이라는 약자로만 써어 있군요.”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 《현대인》 9월호에 실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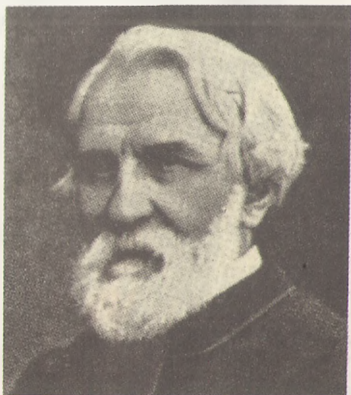
이야기는 큰형 니콜라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의문

이 설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사방에서 《유년 시대》
를 쓴 작가의 이름을 알
려 달라고, 문의 전화와
편지가 《현대인》 잡지사
와 그 당시의 유명한 작
가들에게 빗발치듯 날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
와 같은 세상일에는 빙
그레 웃기만 할 뿐, 코카



투르게네프



서스의 온천 여관에 틀어 박혀 다음 작품인 《침입》을 쓰는 데에만 열중해 있었습니다.

한편 1853년 11월,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크림 전쟁>입니다.

장교로 진급한 톨스토이는 전쟁이 일어나자 적과 대치하고 있는 루마니아 파견대에 배치를 받아 갔다가, 뒤이어 크림 파견대로 옮기게 되어, 1854년 11월 7일에는 흑해의 크림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 도착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애국심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바스토폴
은 곧 적에게 포위당
하여, 그 이듬해 봄까
지 죽음에 직면한 홍
분과 공포 속에서 살
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극한적인 상
황 속에서, 그는 다시
종교적인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탄이 빗발
치는 속에서도 틈만
나면 미친 듯이 소설
을 썼습니다. 그의 자
서전적인 소설인 《소
년 시대》《청년 시대》
를 비롯해, 《추억》 등
의 작품이 모두 이 때
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아
름답던 꿈보다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그에게 더 절
박하게 이야기를 걸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청년 시대》를 채 끝내기도 전에, 빗발치는 포성 속에서 살아 있는 사람과 죽어 가는 사람을 관찰하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작품으로 엮어 갔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54년 12월의 세바스토폴》 《1855년 5월의 세바스토폴》 《1855년 8월의 세바스토폴》의 세 편의 이야기로 씌어졌으나, 사람들은 이것들을 한데 묶어 《세바스토폴 이야기》로 불렀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러시아의 황후는
첫번째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읽고 울었다고
합니다. 황제도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 소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를 안전한 곳에 보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한 것은, 그 당시
러시아의 귀족들은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 소설을 귀족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
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한 것은, 이 소설의 내용이
너무나 조국의 전쟁을 찬양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그
려져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영웅적이었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번의 《세바스토폴 이야기》에서는 애국이니 영웅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전쟁을 저주했습니다.

또, 세째 번의 《세바스토폴 이야기》에서도 전쟁을 더욱 저주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세바스토폴이 함락되던 때의 그 비극적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군대는 마을에서 떠났다. 군인들은 그대로 버려 두고 떠나게 된 세바스토폴 항구를 바라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한숨을 지으며 적을 향해 주먹을 움켜쥐었다.」



톨스토이는 이 무렵부터 문학을 자기의 천직으로 삼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내 천직은 문학이다. 쓰고 또 쓰는 것이다. 내일부터는 일생 동안 글만 쓰기로 하자.」

이 무렵의 그의 일기에는 이러한 그의 결심이 적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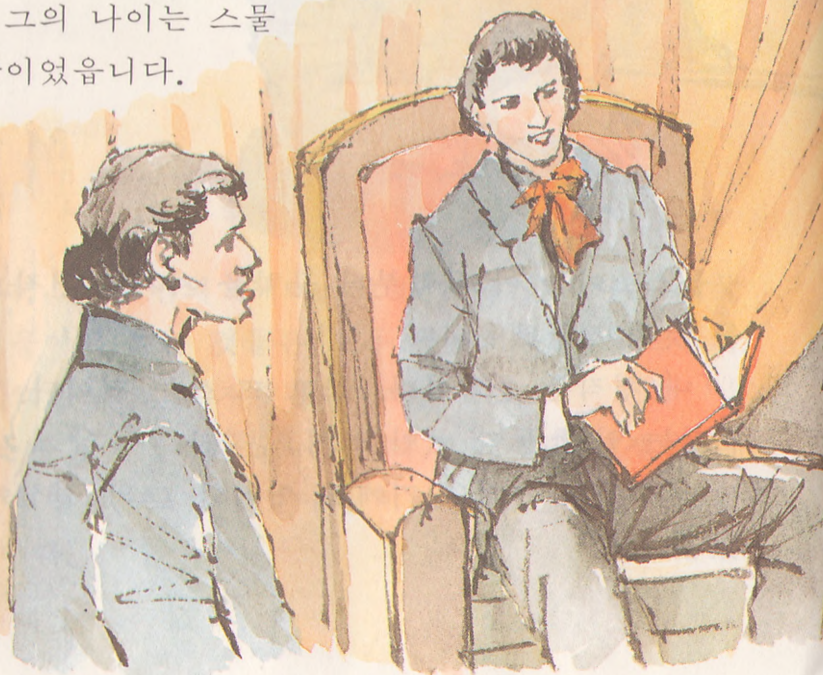


유럽을 여행하다

세바스토폴이 함락되자 톨스토이는 페테르스부르크에 전령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페테르스부르크는 그 당시 러시아의 서울이었습니다.

그 곳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있었으며, 세바스토폴에 있을 때 발표한 《추억》과, 세 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세바스토폴 이야기》 등으로 인하여 톨스토이도 이미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만약, 4, 5년 전에 톨스토이가 이 곳에 왔더라면 상대도 해 주지 않았을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 그의 나이는 스물 일곱 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가들에게서 곧 싫증과 환멸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천하고 거짓으로 꾸며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를 환영해 주는 작가들 중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르게네프도 있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며,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르게네프는 농노들의 해방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연한 기회에 그러한 투르게네프의 집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며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농노들의 해방을 주장하는 투르게네프에게서까지도 환멸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는 투르게네프가 소문과는 달리 사치한 생활을 하며, 농부들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만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거짓을 아주 싫어하고, 발끈 성을 잘 내는 톨스토이는, 일단 투르게네프의 생활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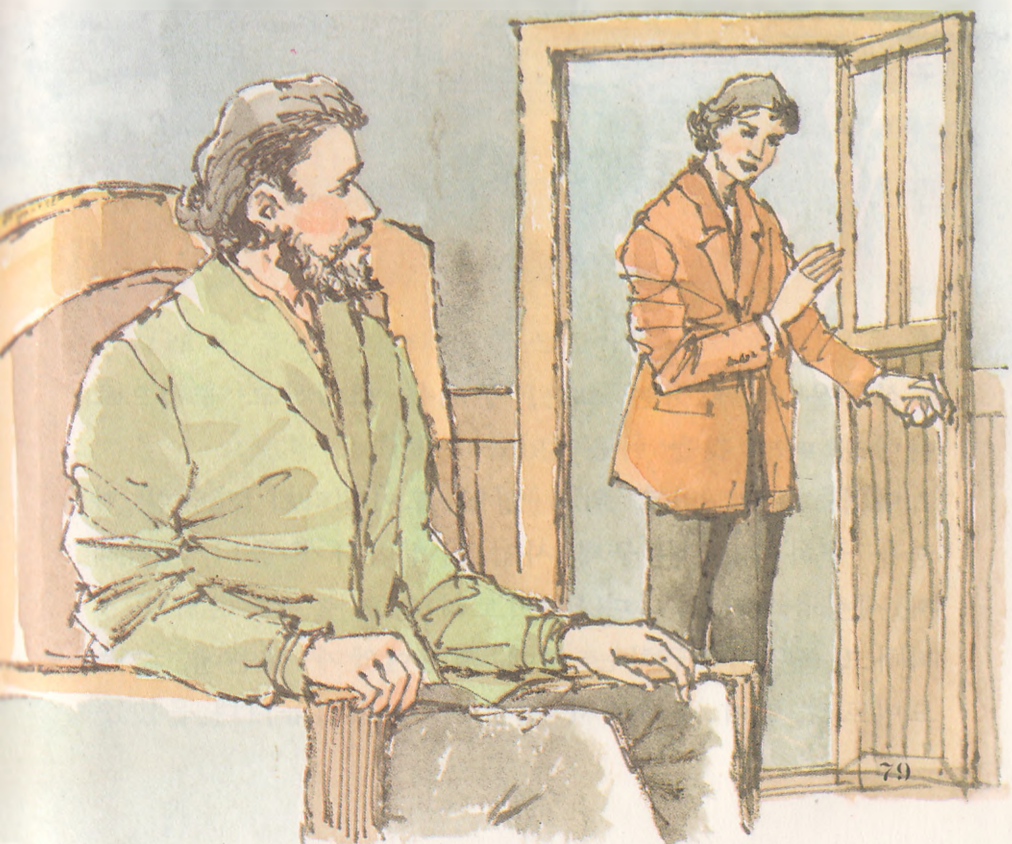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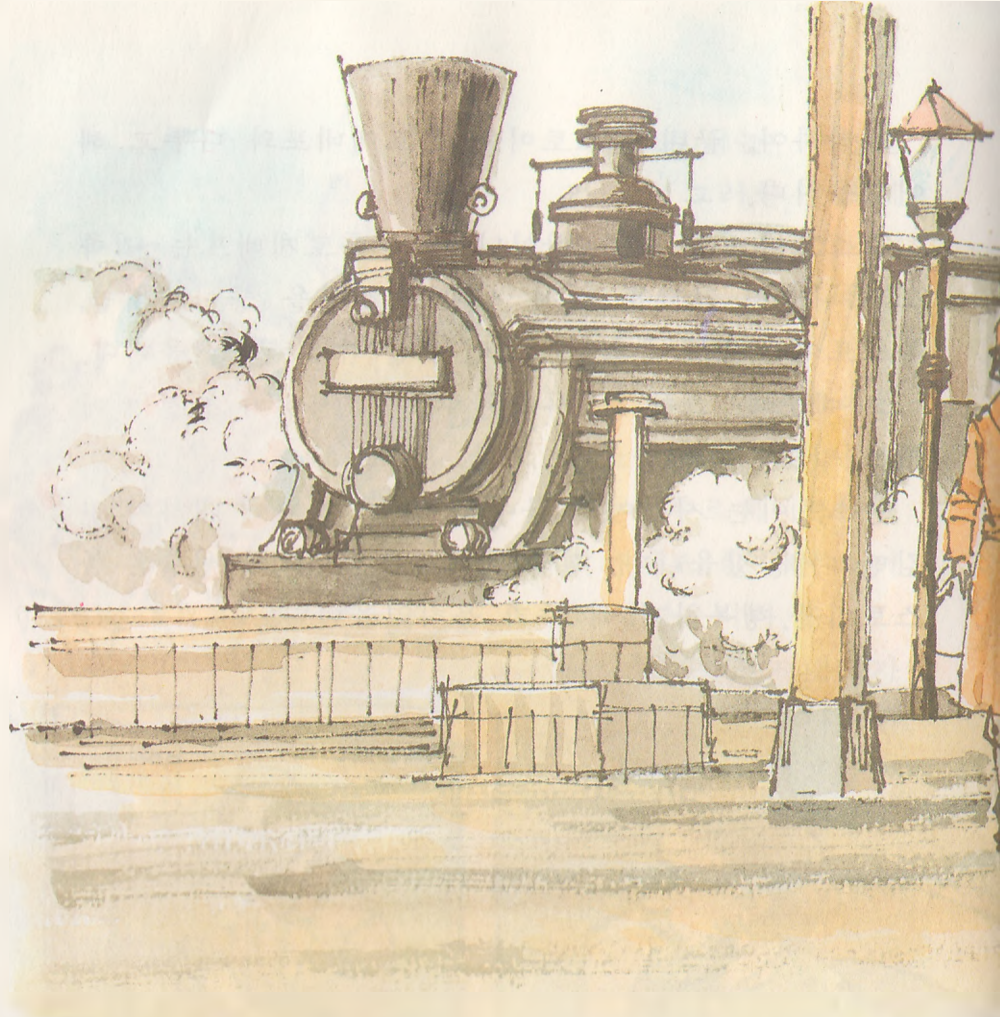
그리하여, 끝내 톨스토이는 투르게네프와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톨스토이보다 스무 살이나 위인 투르게네프는 귀족도 아니면서 점잔을 빼며 사치한 생활을 좋아했지만, 톨스토이는 귀족이면서도 그런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은 자연히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작가에 대하여 반감만 더해 갔습니다. 결국 페테르스부르크의 생활은 톨스토이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삶중을 잘 느끼는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 때, 바로 위의 형인 드미트리야가 가난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제 사업을 벌이다가 몸이 쇠약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미트리 형도 톨스토이처럼 정직하고 신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이였기 때문에, 그는 드미트리 형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울적해진 톨스토이는 그러한 기분을 떨쳐 버리기도 하고, 투르게네프를 비롯한 러시아의 작가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할 겸 해서 1월 29일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먼저 파리로 향했는데, 파리 역에는 뜻밖에도 전부터 사이가 나빴던 투르게네프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투르게네프는 파리의 이름난 곳을 안내해 주었는데, 그 중에는 죄수를 사형시키는 사형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형장에서 죄수의 목을 잘라 죽이는 광경을 본 톨스토이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쩌자고 저렇게 참혹한 짓을 할까?’

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다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하고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때의 광경과, 그것을 본 기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회록》이라는 그의 책에서,

「나는 죄수의 목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현재의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어떠한 이론도 그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설령, 인류가 아무리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의 악(惡)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라고 그 때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 스위스로 갔읍니다. 알프스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스위스는, 맑은 호수와 항상 흰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 곳의 호텔이나 별장에는 놀러 온 돈 많은 영국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위스 사람인 거지가 와서 기타아를
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
이 그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노래가 끝나자 모자를 벗어 들고 영국 사람들
앞으로 가서 구걸을 하였지만, 어느 한 사람도 거지의
모자 속에다 돈을 넣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에게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 때, 톨스토이가 거지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스위스 음악가 양반. 기타아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료. 나와 함께 술이나 한 잔 합시다.”

톨스토이는 거지 음악가를 데리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영국 관광객들이 헐박이라도 하듯 톨스토이에게 눈을 흘겼지만, 톨스토이는 태연하게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듣고 마음껏 즐겼 으면서도 한 푼도 주지 않는 사람은 도둑놈이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거지를 위로하고, 거지와 식사를 마친 뒤 충분한 사례까지 했습니다. 그는 뒷날 <루 세른>이라는 그 거리의 이름을 따서 거지 음악가와 영국인들을 소설로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란 좀더 평등해야 한다고 마음 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7월 30일에 유럽 여행을 마치고 페테르스부르크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곧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농민들을 지도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말입니다.



농민 학교를 세우다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집 근처에 농민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가난하고 무지한 농노들의 자녀들을 상대로 세운 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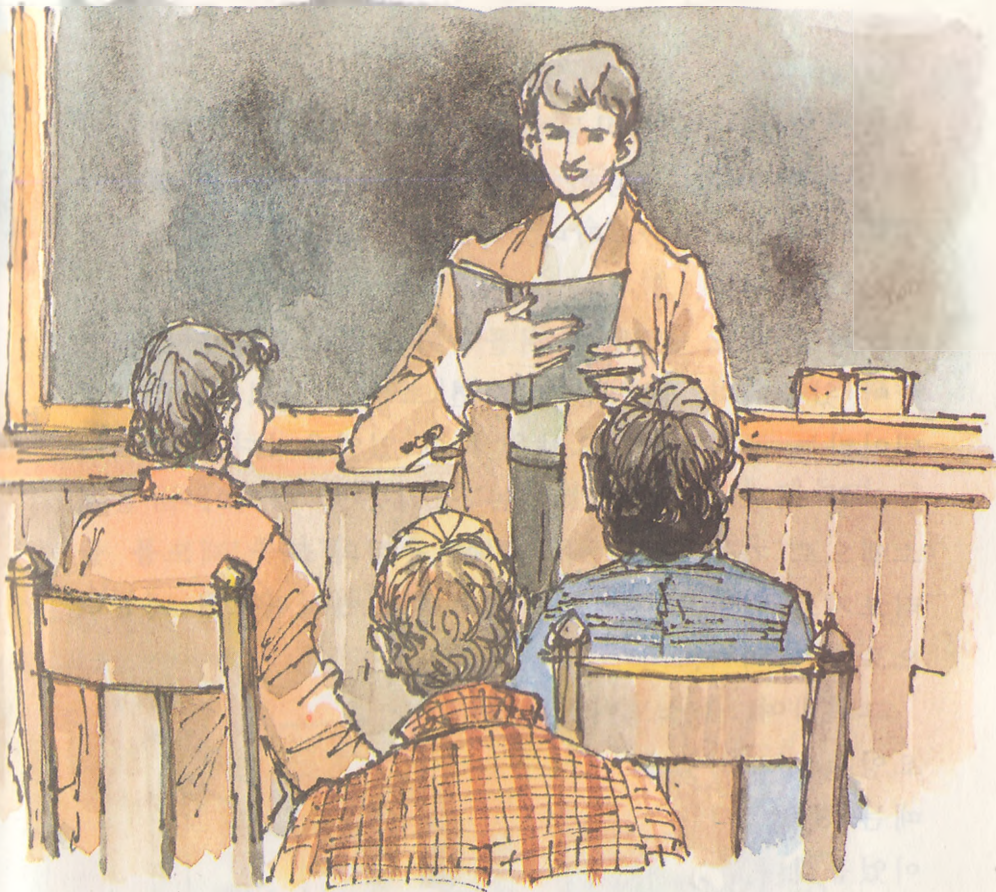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농노들의 아이들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일찍 나와 있던 몇 명의 아이들이 매일 아침, 학교에 나올 아이들을 부르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농노들은 제 자식들에게,

“학교에 나간다고 좋은 농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한답시고 건방만 들어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 다른 곳으로 팔려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잠자코 집



톨스토이가 가난하고 무지한 농노들의 자녀를 위해 그의 영지 안에 세운 학교



안에 틀어 박혀서 일이나 열심히 해!”

하고 꾸짖었기 때문에, 여간 해서 아이들을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학교에 나온 아이들에게 강제로 외게 하거나 시험을 보는 따위의 교육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나 다름없는 농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팔려 가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러시아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희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의 뜻대로 경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 니콜라이에게서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큰형은 1860년 초에 의사의 지시로 소덴이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톨스토이는 누이동생 마리아와 함께 소덴으로 가는 길에, 이 기회에 유럽의 교육 제도를 둘러보기로 하고, 일행과 떨어져서 도이칠란트의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톨스토이가 소덴의 요양소에 도착했을 때는 8월 26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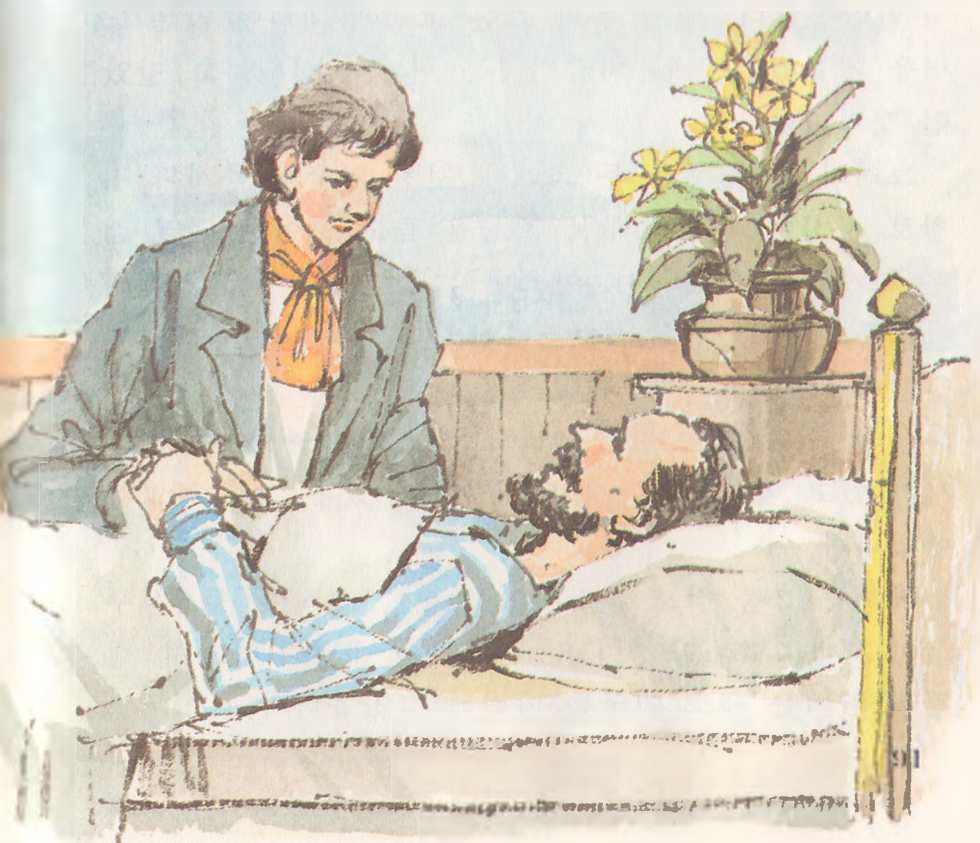


실마 대수롭지 않겠지 생각한 형의 병은 뜻밖에도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지중해 연안의 따뜻한 요양지로 형을 옮기고 정성을 다 쏟았지만, 큰형의 병세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큰형 니콜라이는 기어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가슴 속 깊이 맴돌며 그를 몹시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톨스토이의 가슴 속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떠날 줄 모르고 피어 올랐습니다.

‘그렇다. 사람이란 결국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죽을 때까지 남을 도와서 착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결국 몸은 죽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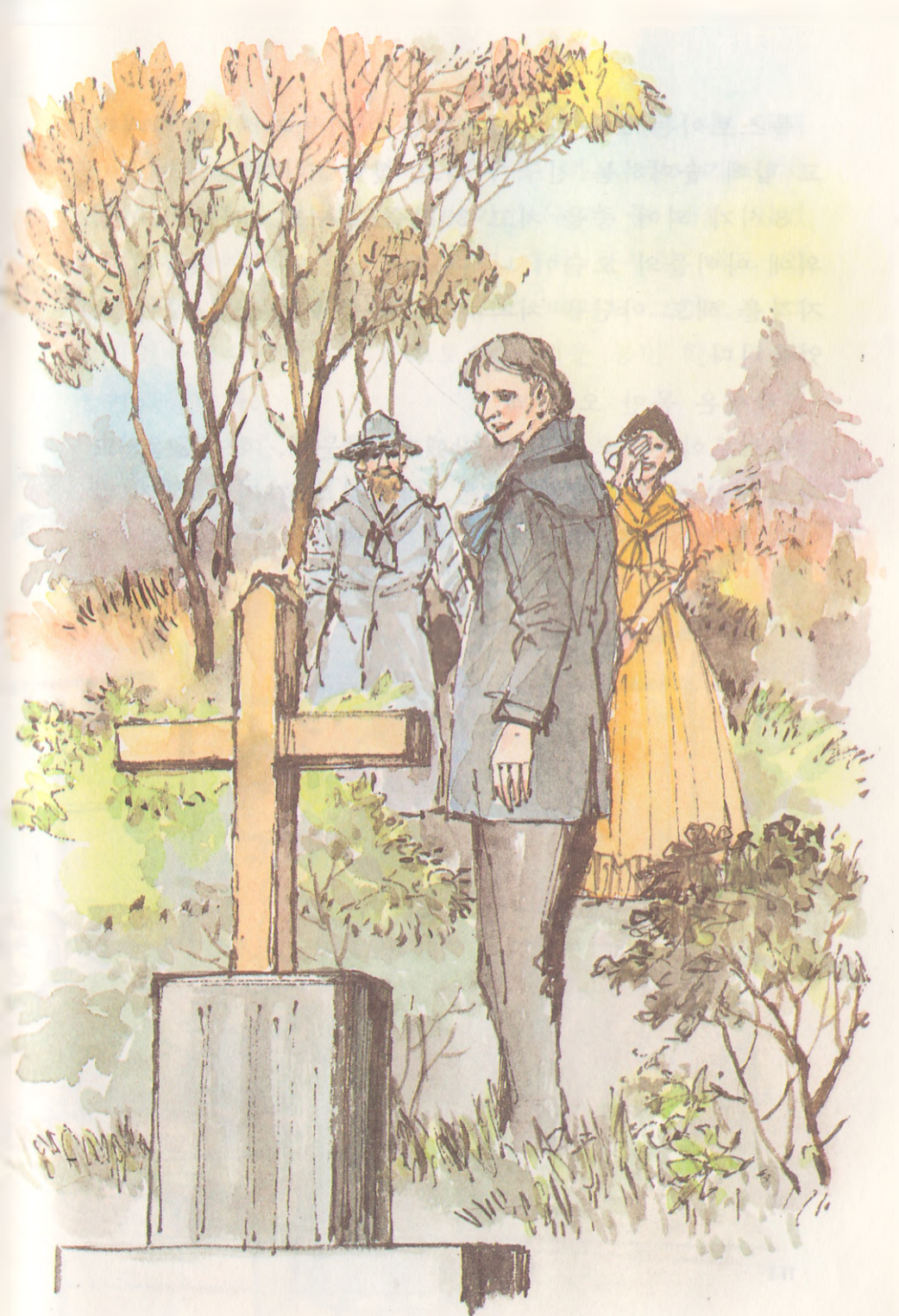
톨스토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훗날 저 유명한 《인생론》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겪었던 일을 《카자흐》라는 제목의 소설로 썼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도이칠란트, 영국 등지의 교육 제도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학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교육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지금까지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차례에 걸친 외국 교육계의 시찰로 자신이 생겼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몇몇 젊은 교사들과 의논하여, 야스나야 폴리야나에 5, 6 개의 학교를 만드는 한편, 《야스나야 폴리야나》라는 잡지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란 오늘날의 학교와 같이 커다란 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2 층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교실이 둘, 사무실이 하나, 그리고 처마 밑에는 종이 매달려 있으며, 현관 근처에는 체조 기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톨스토이는 교육자로서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8시가 되어 종을 치고 30분쯤 지나면, 저만치 언덕 위에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해도 야단을 치지 않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학생은 몸만 오면 돼.”

톨스토이는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서나 노트 연필은 물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절대로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지루해하면 1 시간만 공부를 하고 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들려 줄 때도 있었으며, 날씨가 좋은 날은 숲으로 가서 공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공부하다가 그냥 가 버려도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세운 농민 학교의 교풍이었습니다.

1861년, 서른 세 살 때 그는 크라피브라라는 지방의 토지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토지 중재자란 지금의 판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는 토지 중재자가 되자, 가난한 지주나 농민들의 보호자가 되어, 대지주와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톨스토이는 여전히 어린 학생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톨스토이는 학생들과 학교 경영에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형님처럼 일찍 죽게 되면 곤란하지. 빨리 사마라 현에 가서 말젖을 마시는 식이 요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톨스토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젖을 마시며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 해 5월 사마라 현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마라 현으로 가고 없을 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톨스토이가 토지 중재소에서 농민들의 편을 들어 지주들과 싸웠기 때문에, 어떤 지주로부터 중상 모략이 들어간 것입니다.

6월 어느 날, 헌병 대령이 인솔하는 한 떼의 헌병들이 야스나야 폴리야나를 급습하고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때문에, 타치아나 아주머니는 병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는 휴양지에서 이 소식을 듣고 화를 참을 길이 없어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황제를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숲속에 숨어 있다가, 황제가 산책을 나왔을 때 뛰어 나갔습니다.

주위의 호위병들이 놀라서 급히 가로막았으나, 톨스토이는 재빨리 황제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톨스토이 백작이옵니다.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너무나 갑작스런 일에 황제도 놀라는 표정이더니,

“암, 기억하고 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헌병들이 저지른 만행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잘 조사해 보도록 지시하겠네.”
하고 황제가 대답했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온 지 얼마 후, 황제의 사
자가 정중한 사과의 편지를 가지고 톨스토이
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겨우 화가
풀렸고, 아이들도
다시금 학교에
모였습니다.





찬란한 문학 시대

톨스토이가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들 가운데 베루스라는 의사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베루스는 황제의 주치의인데, 그의 부인과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으며, 베루스의 아버지와 톨스토이의 아버지도 서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딸 셋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도 그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들 세 딸들은 어느덧 결혼기를 앞둔 처녀로 성장하여 톨스토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셋이 다 마음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둘째 딸 소피아가 톨스토이의 마음을 가장 끌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차마 소피아에게 구혼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톨



스토이는 소피아보다 열 여섯 살이나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결혼 신청을 한다는 것이 좀 지나친 행동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자기의 마음을 소피아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말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말의 머릿글자만을 테이블 위에 썼습니다. 소피아도 톨스토이를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른 네 살의 노총각이었던 톨스토이는 1862년 9월 23일, 이제 열 여덟 살밖에 안 된 소피아와 모스크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야스나야 폴리야나에 새 보금자리를 꾸미고 한 가정의 선량한 남편이며 너그러운 지주로서 즐거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고 농민을 위해서도 더욱더 힘썼습니다.

모든 시중은 소피아가 자상하게 들어 주었으므로, 마음에 안정을 얻은 톨스토이는 이제 마음놓고 장편 소설을 쓸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문학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면서, 이번에는 무언가 좀 다른 것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톨스토이 백작 부인이 된 소피아는 톨스토이에게 예술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피아는 문학적 재능이 풍부했으며, 그녀의 말처럼 훌륭한 작가의 아내로서 톨스토이의 작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64년 가을, 서른 여섯 살이 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도 남편과 일을 같이 했습니다. 남편이 부르면 받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써 놓은 원고를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천재적인 능력에다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여자의 혼(魂)이라는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의 작품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여자의 모습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난 뒤로는 여러 형태의 처녀나 아내의 모습으로, 남자들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온 심혈을 기울여 《전쟁과 평화》를 써 나갔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쓰기 시작했을 때 장남이 태어났고, 그 사이에 세 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 5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서 《전쟁과 평화》를 완성했을 때에는 벌써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전기 작가 로맹 롤랑의 말처럼, 그 작품 속에는 역사상의 한 시대 전체와 여러 민족의 움직임과 여러 나라 사이의 전쟁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실로 방대한 작품이었습니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이 방대한 장편 소설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쟁과 평화》가 완성되자, 톨스토이는 마치 해방된 기분이 되어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농촌 운동과 농민들의 교육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쓸 때에도 늘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아동용 초등 교과서를 쓰기로 하고, 아내를 조수로 삼아 다시 교과서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이 교과서 집필은 그 후 4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맡은 학교 시간만은 한번도 빼 놓지 않고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871년, 교과서를 쓰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무리하게 그리이스 어를 공부하느라고 톨스토이는 건강이 나빠졌으므로, 말짚 요법을 하기 위해 전에도 간 적이 있는 사마라 현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는 여기서 마흔 세 살 때부터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가족을 데리고 사마라 현으로 갔을 때는, 심한 기근이 들어서 농민들의 고통이 몹시 심할 때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도저히 이와 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몸이 약해졌다는 것을 핑계로 가만히 앉아서 요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곧, 친척이 되는 궁정의 여자 관리와 황후에게 이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리하여, 사마라 현의 기근이 알려지자 사방에서 많은 구호금과 구호품이 들어왔습니다.



톨스토이는 구호금과 구호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 기근을 당한 마을의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텅 비어 있고, 뼈만 앙상한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야윈 아낙네들만이 집을 지키고 있을 뿐, 남자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들에게 빵과 돈을 주기도 하고 말을 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스나야 폴리야나에서 보리와 닭과 소와 돈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을 계속 도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을 도와 주는 동안에 건강이 회복되어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다시 글을 쓰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1873년 3월, 마흔 다섯 살이 된 톨스토이는 가정 소설인 《안나 카레니나》를 쓰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처럼 모시던 타치아나 아주머니가 돌아가셨고, 페라게야 고모도 돌아가셨으며, 잇달아 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잇달은 죽음은 그를 슬픔과 고독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그는 외로움과 싸우면서 《안나 카레니나》를 써서, 1877년에는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정부에 의해서 여러 군데가 삭제된 채 발표되었습니다. 너무나 귀족들의 생활을 공격하고 농민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온갖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었지만, 러시아가 낳은 또 하나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만은,

“조금도 흠이 없는 세계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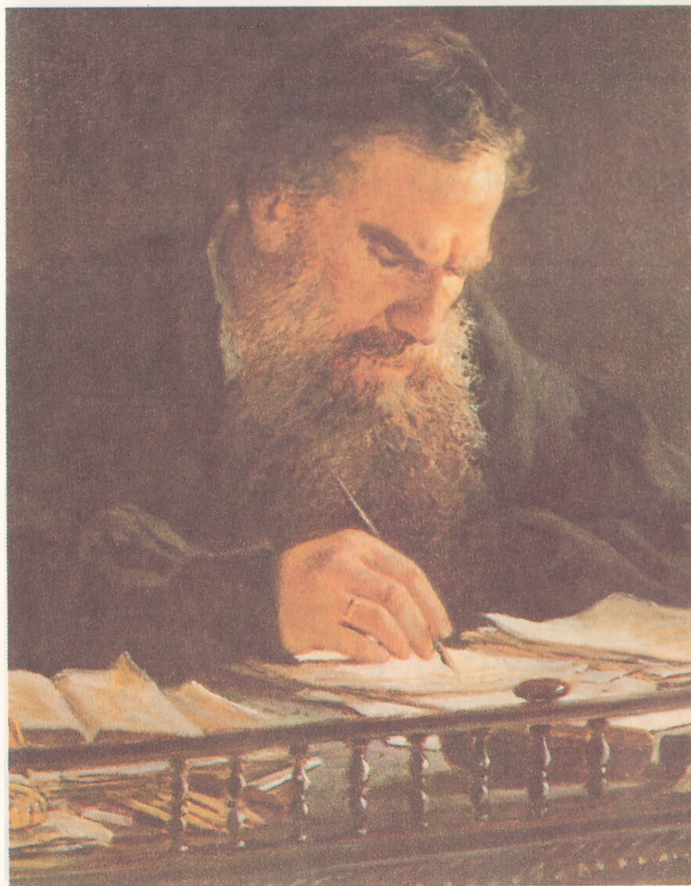
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지금도 《안나 카레니나》는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땀 흘려 빵을 얻으라 !

톨스토이가 경영하는 학교에는 여전히 누더기옷을 입고 어깨가 축 늘어진 굶주린 어린이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교실이라야 그의 집이 고작이었으며, 선생이라야 톨



집필을 하고 있는 톨스토이의 모습.

스토이와 그를 도와 조수로 일해 주는 그의 부인과 두 아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50을 바라보고 있었고, 《안나 카레니나》를 마쳤을 때는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몹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평생을 두고 변함 없는 애정을 쏟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농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수확을 하는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스스로 밭에 나가 일을 해서 난민 구호 활동에 이바지했다.



소피아 부인은 톨스토이가 전처럼 소설을 쓰는 데 전념하지 않고, 농민을 돕는 일에 몰두하여 시간과 정력을 너무 낭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 문제에 지나치게 골몰하는 것을 보다 못해 나중에는 분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이는 머리가 빠개질 때까지 읽고 생각해요. 교회가 복음서의 교의(敎義: 종교의 본래 뜻)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 내기 위해서지요. 하루 빨리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꾸념을 하였지만, 톨스토이의 그러한 병은 좀처럼 치유될 줄 몰랐습니다.



소피아 부인은 농민들과 신앙 문제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톨스토이가 안타까웠지만, 톨스토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게다가, 소피아 부인이 못마땅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야나 저택 앞에는 해묵은 커다란 느릅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톨스토이는 그 나무에 종을 매달아 놓고, 종을 울리면 집안 사람들이 그 밑에 전부 모여 차를 마시거나, 어떤 때는 거기서 식사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느릅나무 밑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종을 땡땡 치면 그 주변을 어정거리던 가난한 사람들이 톨스토이 앞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톨스토이는 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호소를 듣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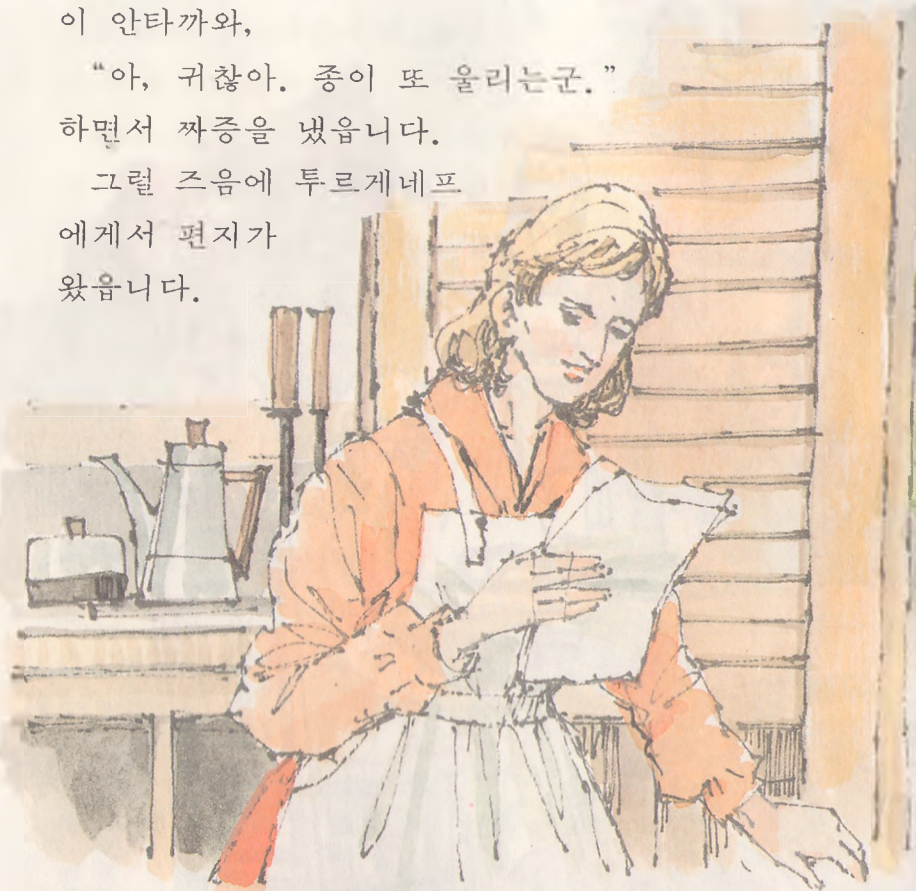




그 때마다 소피아 부인은 톨스토이가 작품을 쓸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재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이 안타까와,

“아, 귀찮아. 종이 또 울리는군.”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즈음에 투르게네프
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쟁과 평화》와 같은 훌륭한 소설을 써 주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까지도 《전쟁과 평화》를 극찬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틀렸으나, 당신은 진정 러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일에는 관심을 쏟지 마시고 계속 작품을 써 주십시오.」



톨스토이 부인은 그 편지를 읽고 너무나 기뻐서,
“그것 보श्य. 투르게네프 님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
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작품을 쓰श्य.”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아내와 투르게네프가 자기의 참
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서글프고 안타까
왔습니다.

1881년, 그가 원 세 살이 되던 해에 톨스토이는 가족 때문에 모스크바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스크바로 이사하는 것이 호사스럽게 지내는 귀족들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어 몹시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부인은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모스크바에 온 지도 내일로서 꼭 한 달이 된다. 처음 2주일 동안 나는 매일 울면서 지냈다. 남편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이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때로는 울기까지 한다. 나도 미칠 것만 같다.」

이렇듯, 톨스토이는 농민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온 것을 괴로와했습니다.

그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지 못할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그런 즈음, 이듬해인 1882년 1월에, 톨스토이는 정부에서 행하는 국세 조사(지금의 인구 조사) 위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도 가장 비참하다는 빈민굴로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동안 빵 한 조각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데에 놀라서,

“차라리 경찰에 붙들려 들어가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추방당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이와 같은 참상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하고 탄식하며, 마치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선회를 열고 의연금을 모아 보았으나, 부자나 귀족들이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맥이 짝 빠진 톨스토이는 가족을 모스크바에 남겨둔 채 혼자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런 참혹한 현상이 생겼을까 하고 꼼꼼히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부자들과 귀족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사치라고 하는 저주받을 전염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만드는 정부의 탓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렇다면 이러한 악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나? 그것은 먼저 그들에게 끼지 말고, 그런 짓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 착취에 가담하는 것을 거절하



고 토지나 돈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마에 땀을 흘려서 자기의 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종교의 근본적인 계율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귀족들과의 교제도 끊어 버렸습니다.

나무를 베어 뿔감으로 만들어서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밭에 나가 풀을 베고 추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화공에게 구두 짓는 법을 배워서 구두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신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러한 모습을 전해 들은 투르게네프는,

“당신이 써야 할 연장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펜을 드십시오. 그리고, 보리의 씨앗이 아닌 정신의 씨앗을 세계에 뿌려야 합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톨스토이는 그러한 생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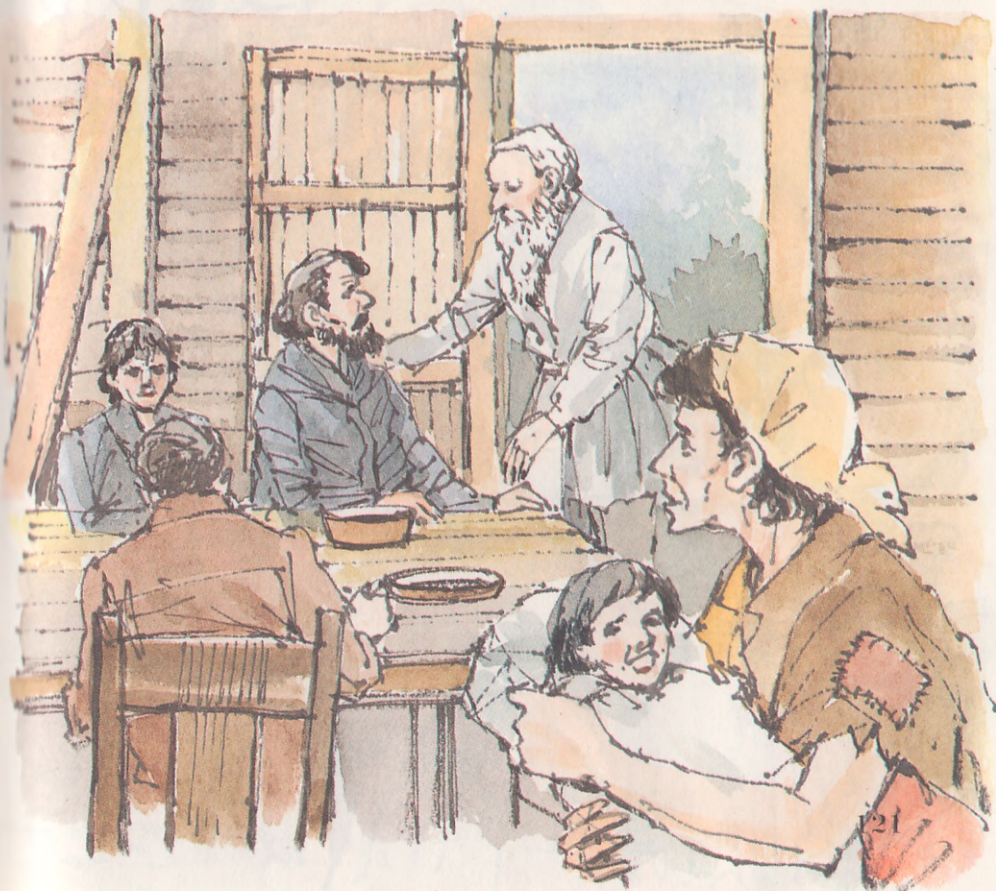


야스나야

폴리야나의 성자

1891년 여름, 러시아에는 무서운 대기근이 밀어닥쳤습니다.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톨스토이는 그대로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 흉년이 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기근이 가장 심한 지방으로 가서 무료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군데 밖에 안 되던 무료 식당이 약 반 년 뒤에는 200군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톨스토이와 그의 아들과 딸들은 굶주린 농민들을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와 같은 활동은 러시아의 신문에는 물론 유럽과 미국 신문에까지 보도되어, 많은 돈과 여러 가지 구호품들이 속속 톨스토이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톨스토이와 그의 아들과 딸들은 꼬박 이 3년 동안을 구제 사업에 종사했는데, 처음 2년은 무료 식당을 열고 그 곳에서 일했으며, 마지막 1년은 전염병이 무섭게 돌았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구제 사업을 마쳤을 때의 톨스토이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나이가 들어 수염과 머리카락도 허영게 세어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딸들과 함께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허덕이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드디어는 전재산을 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이러한 생각을 전해 들은 소피아 부인은

“당신은 미치광이가 되었어요!”
라고 외치면서 강력하게 반대
했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어쩔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겠다면 할 수 없지. 그렇다면 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자주 오던 그리샤라는 순례자처럼, 바람에 먹을 것을 넣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생각으로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빨리 돌아오세요.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죽어버릴 거예요.」

라는 부인의 편지를 하인이 가져왔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집을 나가려던 계획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그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들 자신 속에 있다》라는 책으로 2년간이나 심혈을 기울여 쓰고 있었는데, 그의 사상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카프카즈의 두호보르 교도들이 그 책자를 읽고 대대적인 종교 운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된 사상은, 폭력과 살인을 반대하며 교회의 의식을 철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두호보르 교도들은 무기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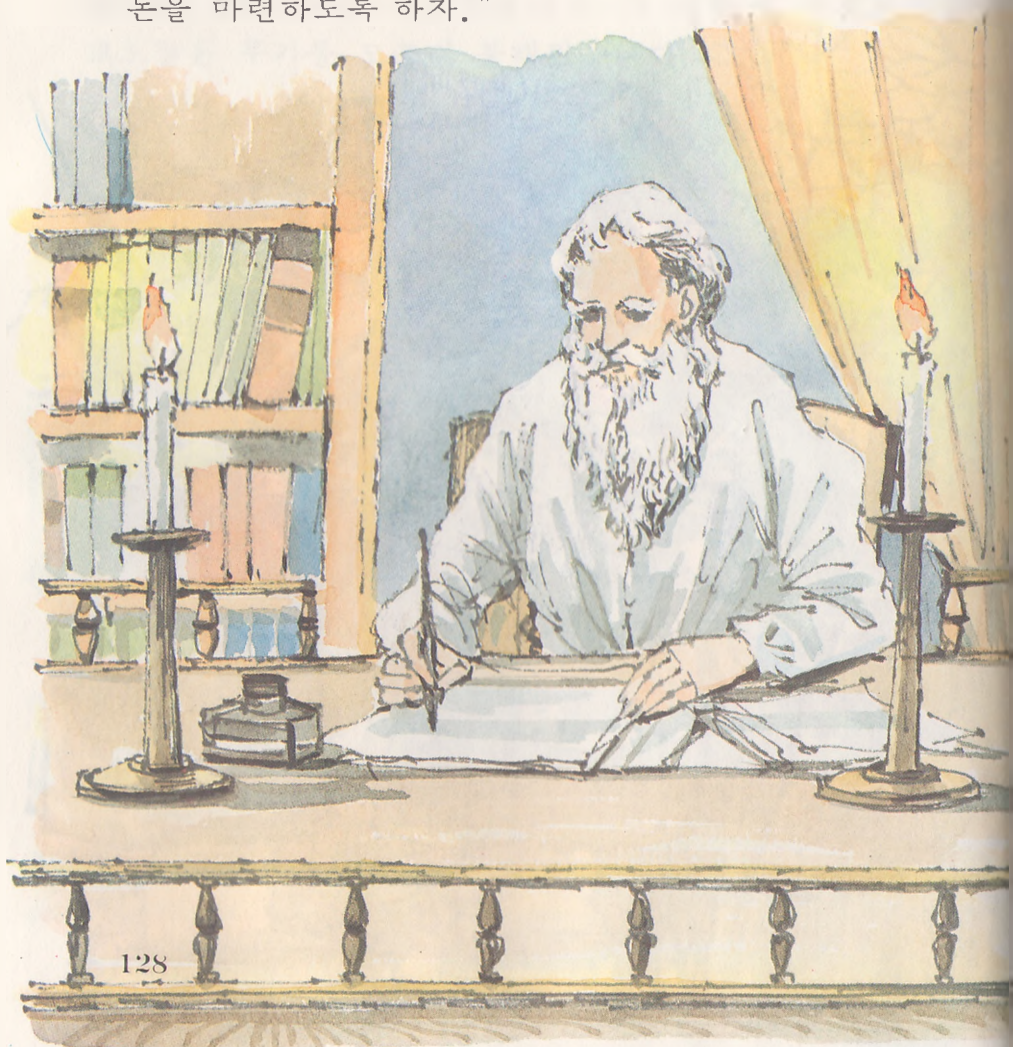
당황한 러시아 정부에서는 군인들을 시켜 수천 명의 두호보르 교도들을 마구 죽였으나, 그래도 그들의 종교 운동이 고개를 숙이지 않자 끝내는 국외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격분한 톨스토이는 정부가 하는 일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캐나다로 이주하게 된 두호보르 교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할 공리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톨스토이에게는 손 하나 대지 못했으나, 그를 따르는 동지들은 모조리 국외로 추방시켰읍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 그렇다. 전에 쓰다 만 소설이 있지. 내 뜻에는 약간 어긋나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니 그걸 빨리 써서 돈을 마련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여 다시 착수한 소설이 그의 3대 명작 중의 하나인 《부활》입니다.

《부활》의 진척은 빨랐습니다. 1899년 3월 말경에 집필을 마치고 러시아에서 발표한 다음, 이듬해에는 유럽 모든 나라에서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부활》은 정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된 채 발표되긴 했으나 날개가 돋힌 듯 팔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돈으로, 국내외에서 그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보살펴 주는 가운데, 두호보르 교도들은 무사히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었으며, 톨스토이는 아들을 시켜 목적지까지 그들을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 《부활》에서 교회의 예배에 대해 너무나 신랄히 비판했기 때문에, 그만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의 러시아 정부에 대한 공격은 두호보르 교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는 러·일 전쟁(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안드레이도 군에 나갔고, 요리사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 갔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신문도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문 기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전쟁에 대한 톨스토이의 의견을 물을 때마다, 전쟁을 미워하는 톨스토이는 정부를 공격했으며, 《반성하라!》는 논문을 써서, 전쟁을 일으킨 정부와 귀족들을 신랄히 공박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톨스토이가 나라 안팎에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체포는커녕 손 하나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톨스토이의 80회 생일이 돌아 왔습니다.



전 러시아 국민들은 러시아의 정신적인 아버지로 존경하는 톨스토이의 80회 생일을 위해 성대하게 축하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정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80회째 생일을 위해 전세계에서 축하객들이 몰려왔으며, 수많은 축하 전보와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톨스토이의 80회 생일 축하 모임을 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스나야 폴리야나에 왔다가는 쓸쓸히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야나는 이러한 축하 행렬로 길이 메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가정 불화

야스나야 폴리야나는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성자이며 전인류의 교사인 톨스토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다시피 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는 도이칠란트의 유명한 시인 마리아 릴케도 있었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소피아 부인



고르키와 체호프 같은 사람도 끼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나 나라 안팎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톨스토이였지만, 가정적으로는 부인과의 불화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빈민을 위해서 많은 돈과 정력을 소비하고 농민과 같은 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인 활동에 힘쓰



느라고 소설을 적게 썼을 뿐 아니라, 부인을 비롯한 가족의 행복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소피아 부인으로는 그러한 톨스토이를 이해할 수 없어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톨스토이는 집을 나가려고도 했었고, 한 때는 이혼까지 하려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서 얼굴만 대하면 항상 혈뜬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사이가 이처럼 나빠진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위대 장교 출신의 귀족으로, 톨스토이의 일을 비서처럼 돌봐 주는 체르토코프라는 사나이 때문이었는데, 소피아 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는 교활하고 배타적인,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러한 체르토코프를 매우 신뢰하여 무슨 일이든 꼭 그와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1890년, 톨스토이가 예순 두 살 때에도 체르토코프의 제의에 따라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 전부를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포기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부인은, 그렇게 되면 가난해져서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몹시 화를 내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아 부인은 자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톨스토이는 1880년 이후에 씌어진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포기하고, 그 이전의 저작권



은 부인에게 말기기로 정하고는 이를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체르토코프가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두호보르 교도들이 일으킨 종교 운동 때에 밝혀졌지만, 체르토코프는 그렇게 함으로써,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출판하여 돈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5년 동안은 톨스토이와 소피아 부인에게 있어서도 별 다툼이 없는 평온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 뒤인 1905년, 체르토코프가 다시 영국에서 돌아오자 톨스토이 주변에는 또다시 불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에 톨스토이의 유언장이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씌어졌으며, 톨스토이가 죽기 전 10년 동안 쓴 일기 중에서 7권이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소피아 부인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체르토코프는 다시 톨스토이에게 집을 나가라고 피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집을 나가면 부인의 방해 없이 체르토코프가 자기 마음대로 톨스토이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피아 부인을 싫어했던 톨스토이는 체르토코프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집을 나갔었지만, 그 때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두호보르 교도 사건이 일어나, 톨스토이의 일을 돌봐 주던 체르토코프는 국외로 추방 명령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체르토코프는 그 곳에서 출판사를 차리고, 의논도 없이, 톨스토이가 저작권을 포기한 작품들을 계속 출판했습니다.

체르토코프는 이렇듯 교활한 방법으로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출판하면서, 영국에 5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피아 부인은 그 모든 것이 체르토코프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펄펄 뛰었습니다.

유언장은,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체르토코프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이었으나, 그 상속인이 막내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없어진 일기장은 큰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톨스토이와 소피아 부인 사이에 일어난 수없는 다툼과 불화가 그대로 찍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세상에 발표되면 큰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부인은 체르토코프에게 일기장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체르토코프는 오히려 그러한





부인을 조롱이라도 하듯
빈정거리며 거절하고 말
았습니다.

부인은 그 때의 심정
을 1910년 11월 1일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
았습니다.

「남편이 쓴 최근 10년
동안의 일기 가운데서
잃어버린 부분을 돌려
달라고 체르토코프에
게 요구했다. 그랬더
니, 망신시킬까 봐 그러
느냐면서 만약 자기에
게 그럴 생각이 있었
다면, 자기에게는 그
만한 힘이 충분히 있
었으므로 진작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톨
스토이를 존경하기 때
문에 그렇게 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 그는, 만약 자기 아
내가 나와 같았다면
벌써 권총 자살을 했



톨스토이의 가출

톨스토이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점점 더 괴로와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집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글이나 말로는

‘가난해야 한다!

거지여야 한다!

이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항상 부르짖던 톨스토이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리는 호화스러운 귀족 생활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인과의 사이는 점점 나빠져 갔으며, 부인은 부인대로 신경이 날카로와져서 성질이 몹시 거칠어져 갔습니다.



거나 미국으로 가 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소피아 부인은 다시 체르토코프를 찾아가서 요구했지만, 그는 돌려 주기는커녕 부인에게 오만 불손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일기는 이틀 뒤, 체르토코프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베껴 놓고 난 뒤에야 소피아 부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인은 때때로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신경질을 부리다가는 졸도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톨스토이를 구원해 준 것은 체르토코프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톨스토이는 그 자신이 먼저 체르토코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부인은 안절부절 못 하다가, 지금 자기는 다 죽어 간다고 톨스토이에게 전보를 치는 한편, 아들 안드레이에게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라! 악당 체르토코프를 죽여 버려라!」

라는 전보를 쳤습니다.

9월 10일, 톨스토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전 내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그녀에게서 떠나야 한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고통스러울 뿐이다. ……저녁 무렵이 되어 정원으로 뛰어나가 울고불고 하며 소동을 피우더니, 내가 그녀를 따라 정원으로



나가자, 내게 짐승, 살인자, 꼴도 보기 싫다며 마구 내뱉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거의 매일 밤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갔읍니다.

그런 어느 날, 톨스토이는 아들 레프의 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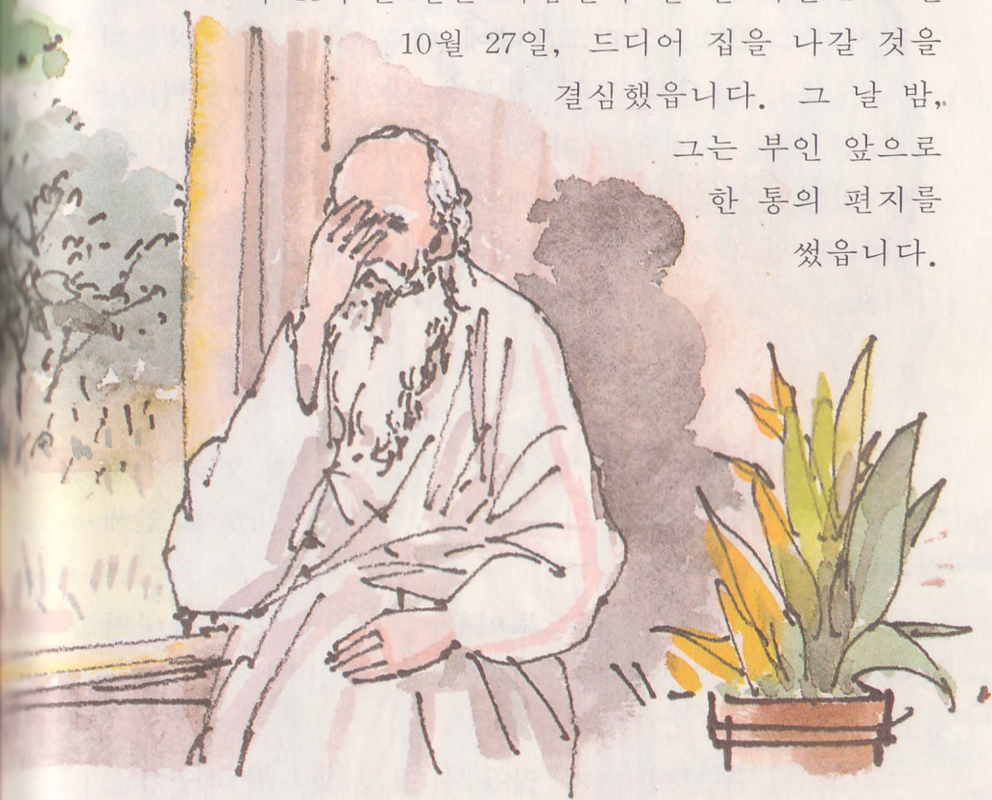
“레프야, 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구나. 정원 땅바닥에 누워 있나 보다. 나가서 어머니를 모셔 오너라.”

아들 레프가 황급히 정원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정말 정원에 누워 있었읍니다. 또 신경질적인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 레프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자,

“싫다, 싫어!”

하고 미친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런 일이 날마다 계속되는 가운데, 톨스토이는 그의 48주년 결혼 기념일이 한 달 지난 1910년 10월 27일, 드디어 집을 나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 날 밤, 그는 부인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가솔은 아마 당신을 슬프게 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도 아프지만, 나로서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소. 나는 이제 이 이상 더 버틸 수가 없게 되었소. 그래서, 내 또래의 노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싶어졌소. 그러니, 내가 있는 곳을 찾아 낸다 하더라도 제발 나를 찾아오지 말기 바라오. 당신이 나를 찾아오면 당신의 입장도 내 입장

도 틀림없이 난처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당신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요. 나와 함께 지낸 지난 48년간의 생활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소. 그리고, 나에 대해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모든 잘못을 내가 용서하듯이,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기 바라오. 만일 내게 알릴 것이 있다면 알렉산드라에게 전해 주시오. 그 애는 내 거처를 알고 있으나 당신에게 알려 주지는 않을 것이요.

레프 톨스토이。」

이튿날 아침, 편지를 받아 본 부인은 정원 연못에 뛰어들어 또다시 자살을 기도했지만, 집안 사람들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편지를 다 쓴 톨스토이는, 의사 듀산과 막내딸 알렉산드라를 조용히 깨워서 필요한 물건을 챙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이 깨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마굿간으로 나왔습니다. 애써 울음을 감추며 마굿간까지 따라온 알렉산드라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 저는 남아 있기 싫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곧 만나게 될 테니까.”



톨스토이는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몸인데도 오프타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쉬고, 다음 날 아침에는 근처 수도원에 있는 여동생 마리아를 만난 다음, 다시 목적지도 없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랄 선 열차의 3등 칸에 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10월 하순은 차가운 날씨입니다. 3등 객차에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마부가 횃불을 들고 마차를 대령했습니다. 이윽고, 마차는 그의 모든 것이 남겨져 있는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아무래도 막내딸이 마음에 걸려, 도중에 알렉산드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드라는 그 길로 톨스토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어차피 올 것이라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 편지를 보냈다. 너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고 톨스토이가 알렉산드라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출구나. 등에 뭘 좀 덮어 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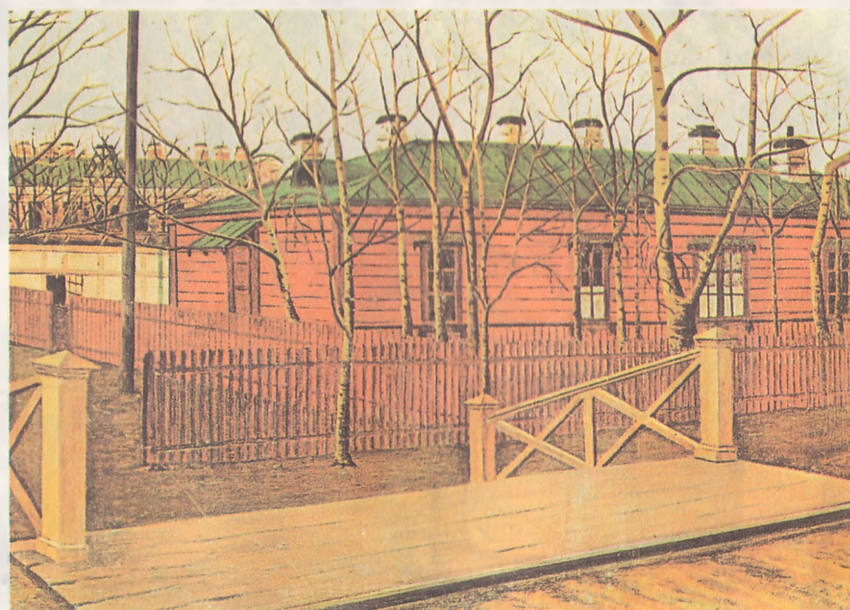
하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얼마 뒤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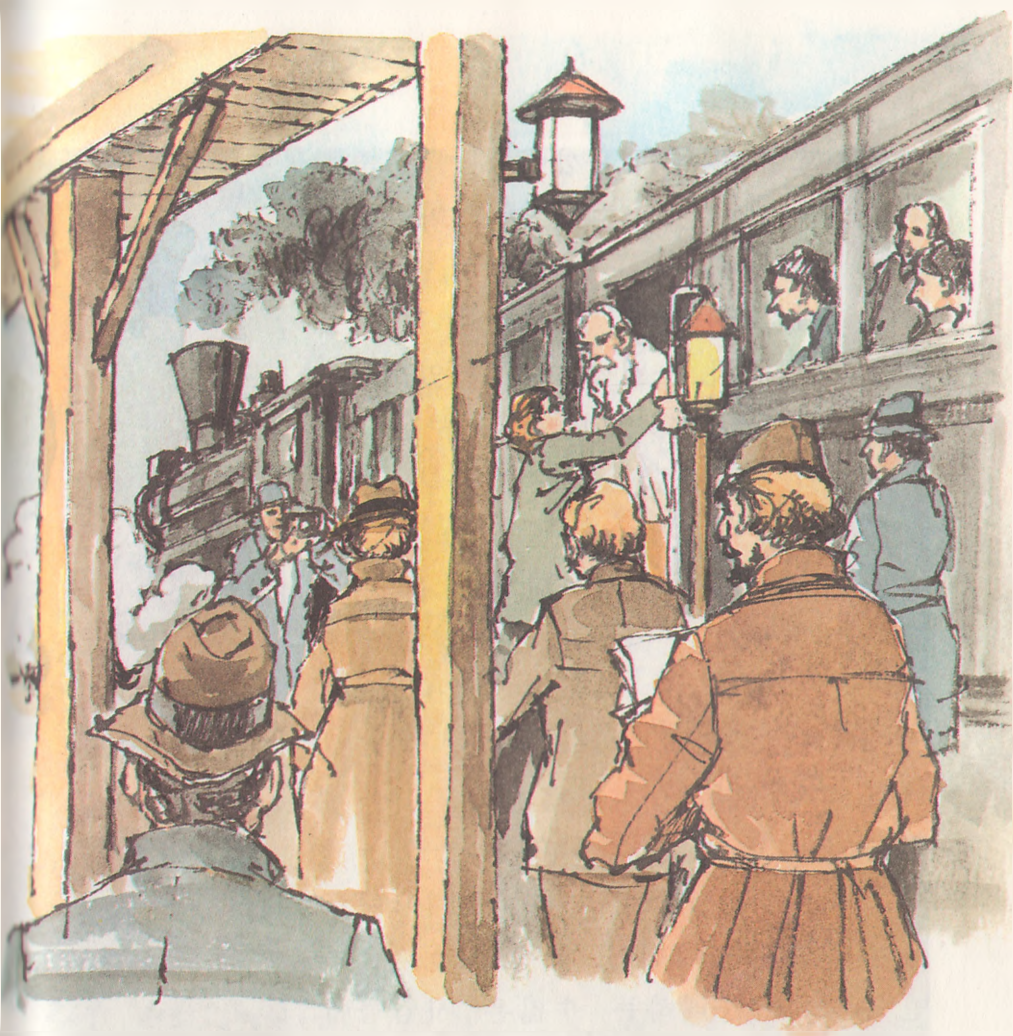
의사 듀산은 열이 38도가 넘는 톨스토이를 이대로 여행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포브라는 작은 시골 역에서 기차를 내렸습니다.

시골 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것을 곧 알아보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온갖 친절을 다 베풀었습니다.

역장의 안내로 그의 사택에 인도된 톨스토이는 열이 39도 3 분이나 됐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는 곳이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스타포브 역 톨스토이는 이 역사에서 사망했다.





그의 병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의 병세가 아스타포브 역으로부터 외부로 알려지자, 작은 시골 역은 신문사의 특파원들과 잡지사 기자 등으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작은 시골 역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장남 세르게이와 장녀 타치아나도 달려오고, 체르토코프도 달려왔습니다. 그의 부인도 특별 열차편으로 달려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아주 가까이 다가온 죽음과 싸우면서,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상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소. 그런데, 어째서 당신네들은 모두 이 톨스토이 한 사람만을 걱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라고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그 뒤, 톨스토이는 곧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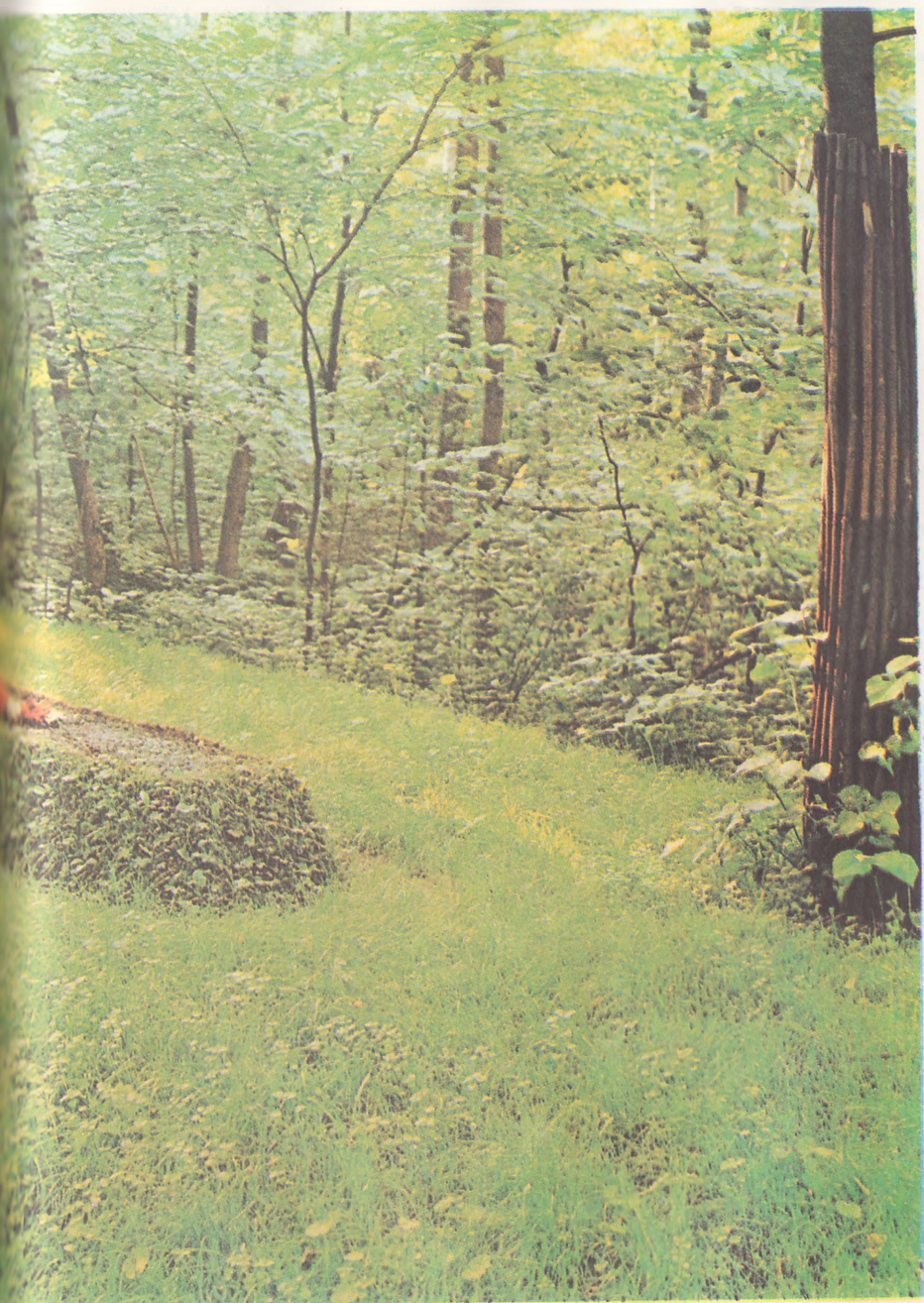
이리하여, 82세의 톨스토이는 1910년 11월 7일 오전 6 시경에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검은 곧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옮겨졌습니다.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 등 그를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그의 주검은 야스나야 폴리야나의 숲 속에 묻혔습니다.

그 곳은, 그가 다섯 살 때 큰형 니콜라이가 비밀의 초록색 막대기를 묻어 놓았던 곳이며, 일찌기 톨스토이 자신이 그 곳에 묻히기를 바랐던 곳입니다.

야스나야 폴리야나 숲 속에 있는 톨스토이의 무덤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영혼

장 문 평

〈문학 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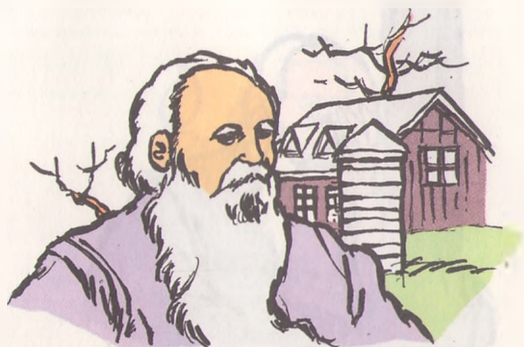
사람들은 톨스토이의 이름 앞에 흔히 〈위대한〉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전쟁과 평화》《부활》《인생론》《안나 카레니나》등 그의 많은 저작이 문학사상 매우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80평생 줄곧 자기 내부에 들어 있는 모든 사악한 욕망, 허욕, 허세 등과 싸워서 끝내 승리를 거둔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10세 이전에 부모를 다 잃고 친척 아주머니들의 보호 속에서 몹시 외로움을 느끼며 자란 톨스토이는, 철이 들면서부터 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가 생각해 낸 보람 있는 일이란, 글을 써서 남들을 깨우쳐 주는 것,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국가나 사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 등 수없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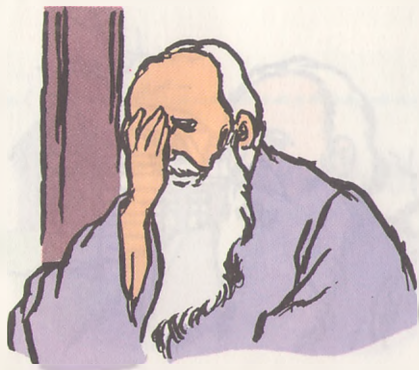
이런 것 때문에, 톨스토이 부부 사이에는 유명한 싸움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톨스토이 부인은 결혼을 할 무렵에는 톨스토이의 작가적 재능 같은 것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톨스토이 역시 결혼 초에는 단란한 가정 생활을 누려 갔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쓰는데 열중할 수 있었으며, 부인의 영향으로 그의 작품 속에는 여인들이 강한 생명력을 갖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또한 톨스토이의 작품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그의 원고를 정리하거나, 원고의 교정을 봐 주는 등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때로는 자신의 신앙 문제에 깊이 빠져 괴로와하기도 했으며, 더구나 노예나 다름없는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에 시간과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에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비참하게 사는 농민들이 마치 자기의 잘못이라도 되는 듯 괴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부인은 이렇듯 남편이 소설에 전념하지 않고 빈민 구제, 교육, 국가의 정책 비판, 교회 비판, 특히 자기 재산의 포기 등 엉뚱한 일에만 정력을 낭비한다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또, 톨스토이가 가끔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의 부인은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전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어 보려고 노력한 남편 톨스토이의 희생적 인류애에 불만을 품고, 남편을 이해하거나 도와 주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톨스토이 생애 중 만년의 투쟁은 그의 부인과의 투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부인은 가장 평범한 여자를 상징합니다. 즉, 그녀는 남편이 대작가로서의 명성을 더 높이기를 원했고, 남편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어했으며,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했고, 재산은 그들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톨스토이 부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주부는 대개 다 그렇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평범한 가정들은 그런 주부의 희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들이 흔히 빠져드는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려 애썼고, 허위투성이의 교회를 거부하면서 하느님의 참된 의사에 순종하려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물이나 행복을 희생시켰고, 그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자 하였으며, 심지어는 그의 처자식마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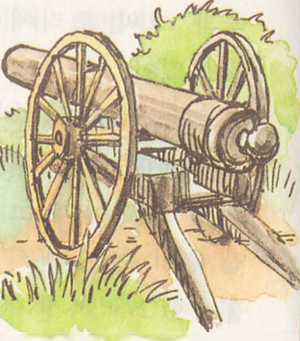
등 성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간 톨스토이가 위대하다는 것은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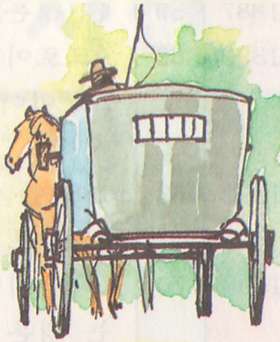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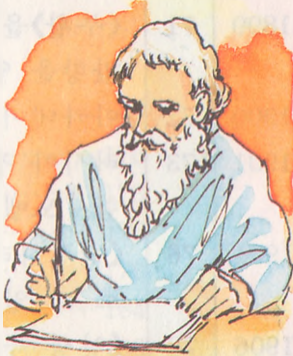
그가 죽기 전에 가출한 사건은, 속세의 모든 부질없는 것을 다 버리고 성자답게 고독과 평안 속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한, 그의 의지의 마지막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82년에 걸친 긴긴 투쟁 끝에, 그는 기어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가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홀몸으로 한 점의 구름처럼 떠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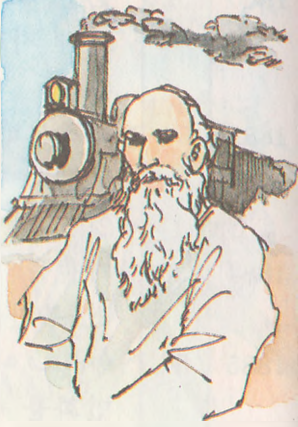
인간이 공연한 욕심, 지나친 이기주의 따위로 해서 저지르는 범죄나 비도덕적 행위가 늘기만 하는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위대한 인간 톨스토이의 모습과 그의 소리에 몇 번이고 다시 귀를 기울이고, 제 2의 톨스토이, 제 3의 톨스토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톨스토이의 전기를 읽은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옛 러시아의 전제 군주들도, 오늘날의 소련의 압제자들도 톨스토이와 그의 유물, 유적, 또는 저서에 대해 함부로 압제의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톨스토이는 훌륭했고,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연 표

연대	나이	톨스토이의 생애와 업적	
1828		8월 28일, 러시아의 톨라현(縣) 야스나야 폴리야나에서, 니콜라이 톨스토이 백작의 4 남으로 출생.	
1830	2	어머니 마리아 사망.	
1837	9	6월에 아버지 니콜라이 사망. 고아가 된 톨스토이네 5남매를 타치아나가 맡음.	
1841	13	톨스토이네 5 남매는 모두 카잔으로 가서, 페라게야 고모 밑에서 자라게 됨.	
1844	16	카잔 대학 동양어 학과에 입학.	
1847	19	카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촌 생활의 개선에 힘썼으나 실패.	
1851	23	카프카즈에서 포병대 입대.	
1852	24	《유년 시대》 발표.	
1853	25	《소년 시대》 《청년 시대》 《추억》 등을 발표.	
1854	26	《세바스토폴 이야기》 집필.	
1855	27	군에서 제대.	
1857	29	유럽 여행. 《청년 시대》와 《알베르트》 등 발표.	
1858	30	야스나야 폴리야나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벌임.	

연대	나이	톨스토이의 생애와 업적	
1860	32	두 번째 유럽 여행.	
1861	33	큰형 니콜라이 사망. 다시 야스나야 폴리야나로 돌아와 농민을 위한 학교 건립.	
1862	34	9월 23일에 의사 베루스의 둘째 딸인 소피아와 결혼. 《카자흐의 사람들》을 집필하기 시작, 1863년에 완성.	
1864	36	《전쟁과 평화》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1869년에 완성.	
1872	44	국민 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교육 사업에 주력.	
1873	45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하기 시작, 1877년에 완성.	
1878	50	《참회록》을 쓰기 시작하여 첫 부분을 1879년에 발표.	
1880	52	논문 《교의 신학 비판》을 쓰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 완성.	
1882	54	모스크바의 빈민굴을 돌아본 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집필.	
1884	56	가출을 꾀했으나, 임신 중인 부인을 생각하고 포기.	
1885	57	《바보 이반의 이야기》라는 민화를 집필.	

연대	나이	톨스토이의 생애와 업적	
1887	59	《인생론》 집필.	
1890	62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쓰고, 이어서 《부활》을 쓰기 시작.	
1891	63	1880년 이후의 모든 저작권을 포기.	
1898	70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평론 발표.	
1899	71	《부활》을 발표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킴.	
1900	72	아카데미 명예 회원이 됨.	
1901	73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함. 노벨 문학상 거부.	
1904	76	《반성하라!》라는 논문으로 러·일 전쟁을 반대함.	
1906	78	《인생 독본》을 쓰기 시작.	
1908	80	8월 28일,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림. 《나는 침묵할 수 없다》라는 글을 통해 사형 제도를 반대.	
1910	82	10월 28일에 가출. 11월 7일, 아스타포브 역에서 82세를 일기로 사망. 11월 9일, 야스나야 폴리야나 숲 속에 묻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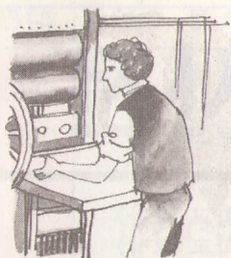
학습 인명 사전

감 수 / 심 경석 (아동문학가 · 서울 서초국민학교 교장)
 〈무순〉 김 종상 (아동문학가 · 서울 유석국민학교 교사)
 도 재희 (아동문학가 · 서울 선일국민학교 교감)
 김 일환 (아동문학가 · 서울 당곡국민학교 교사)
 최 영재 (아동문학가 · 서울 사대부속국민학교 교사)

● 오우엔	162
● 오우 헨리	170
● 오일러	173
● 오펜하이머	176
● 옥타비아누스	178
● 와일드	184
● 와 토	186
● 와 트	189
● 왕 안석	195
● 왕 양명	200
● 왕 유	204

※ 이 인명 사전은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인명을 중심으로 해서 엮었습니다.
 본 전집의 본문에서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여 학습에 도움이
 이 되게 했습니다.

각 인물의 연대별 사실과 나이의 관계는 만(滿)으로 쉼하여 통일하고, 특히
 생물 연대 등에 대해서, 세계 인명은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Encyclopaedia Bri-
 tannica)을, 한국 인명은 《국어 대사전》(이 회승 편)을 따랐음을 밝혀 둡니다.



오 우 엔 (1771~1858)

노동 운동의 아버지

18세기 중엽, 아아크라이트가 방적기를 발명하고, 와트가 증기 기관을 발명함으로써 시작된 산업 혁명은 그 때까지의 생산 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다.

그 때까지 손으로 맷돌을 돌려서 가루를 빙고, 물레를 돌려서 천을 짜고 있던 많은 수공업자들은, 가루나 직물을 기계로 빙고 짜내게 되자 일터를 잃게 되어, 공장을 경영하는 자본가한테로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산업 혁명은 영국 사회를 공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와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많은 노동자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 놓았다. 즉,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까지의 영주 대신 자본가라는 새로운 계급에 지배되는 사회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를 보통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자본가들은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노동자들을 값싼 임금으로 고용하여 노예처럼 부렸다. 실제로 그 무렵의 노동자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하고 비참했다.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오우엔이다.

오우엔은 1771년 5월 14일, 북부 웨일즈 몬트 거메리셔의 뉴우타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중류 상인이었다. 열 살 때, 그는 형을 따라 런던으로 나가서 의복 가게의 점원이 되었다. 그 후 두세 번 직업을 바꾸었으나, 18세 무렵까지 점원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사하는 요령과

오 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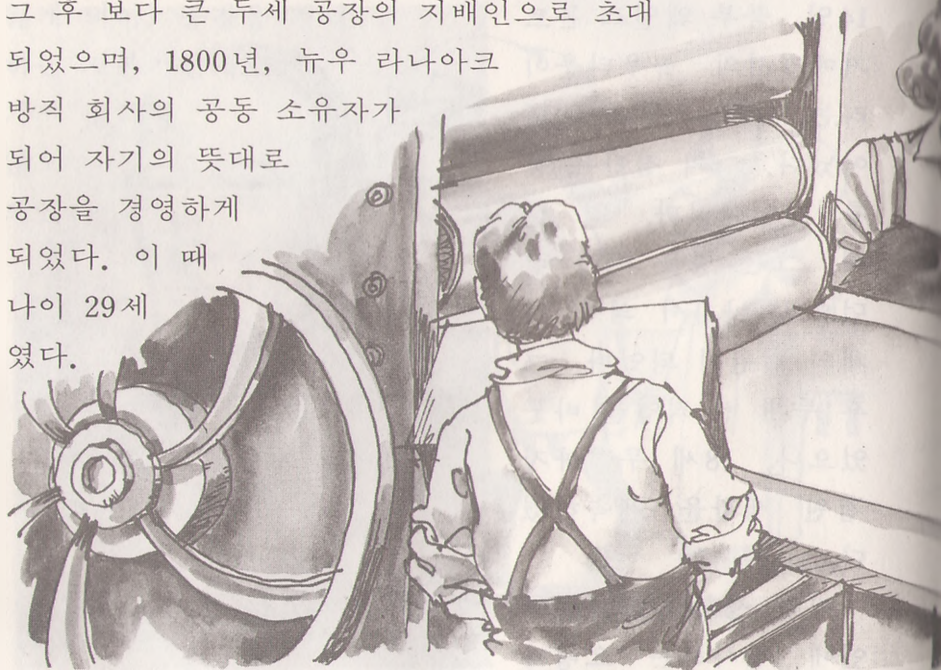


방법을 익혔으며, 신용과 규율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등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이 그의 성격에 완전히 못박혀서, 후에 큰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영국의 산업 혁명은 먼저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다. 직물 공장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어느 공장주나 생산 능력을 올리기 위해 시장 관리 및 경영에 재능이 있는 지배인을 구하고 있었다.

1790년, 진작부터 재능을 인정받고 있던 오우옌은 맨체스터에 있는 어느 직물 공장의 지배인으로 초대되었다. 그때 그는 겨우 19세였으나, 점원 시절에 닦은 재능과 경영 솜씨가 도움이 되어서 그가 경영하는 공장은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점점 좋은 평판을 받게 되어, 그 후 보다 큰 두세 공장의 지배인으로 초대

되었으며, 1800년, 뉴우 라나아크 방직 회사의 공동 소유자가 되어 자기의 뜻대로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다. 이 때 나이 29세였다.



뉴우 라나아크 공장은 2천 명이 넘는 공원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중 5백 명 정도는 예닐곱 살 난 아이들이었다.

그 당시는 어느 공장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싼 임금으로 부릴 수 있고, 하루에 10시간 쯤 일을 시키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 형편은 어린 자식까지 공장에 보내지 않으면 생활해 나갈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본가는 돈벌이에만 온 정신이 팔려서, 비참한 노동자들의 생활 따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열 살 때부터 남에게 고용되어 고생을 해 온 오우옌으로서는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공장 지옥을 밝게 하려면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오우옌은, 뉴우 라나아크 공장에 관계하고 있던 28년 동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

먼저, 어린아이들을 공장에서 부리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만들었다. 이것이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유치원이다. 그리고, 직공들에게는 깨끗한 집을 지어 주고, 좋은 물건을 싼 값에 파는 가게며 훌륭한 병원이나 식당 같은 것을 공장 안에 마련했다.

나아가서, 노동 시간을 줄여 주고 임금을 올린다든지 하여 공장의 환경이나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공장 근처의 도로로부터 온 마을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환경을 아름답게 정비했다.



이리하여, 그의 공장에서는 실제로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노동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그가 경영하고 있는 공장은 그야말로 꿈같은 지상 천국이 되었다.

이러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온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공장을 견학하러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이 오우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겨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의 생각은 후에 이상적 사회주의(오우옌 주의)로 불리게 되어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오우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영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야 마는 성격의 오우옌은 1815년 무렵부터 정부와 의회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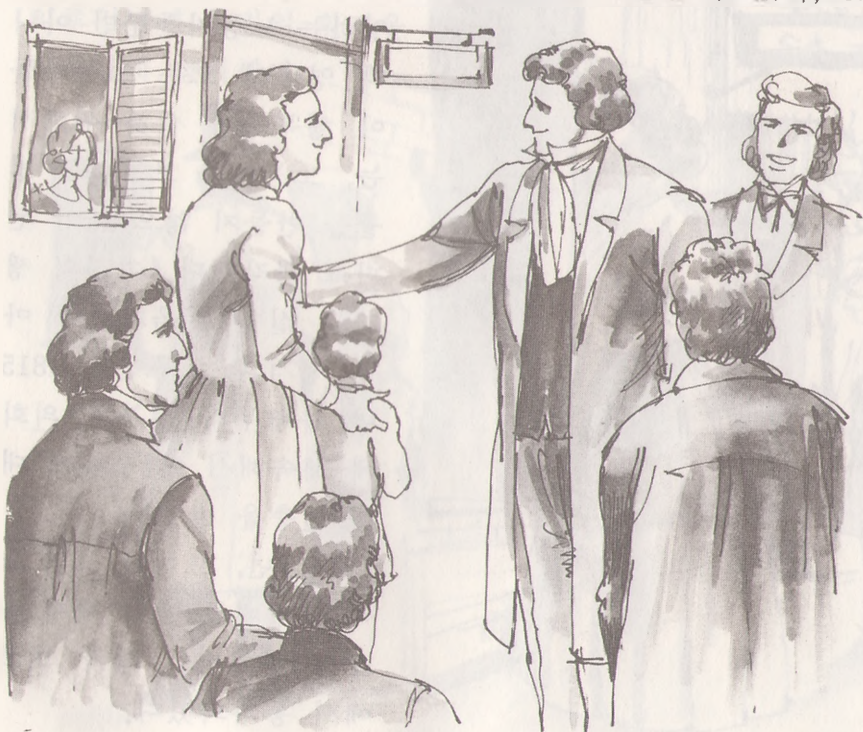
1819년, 드디어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최초의 공장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률에는, 방직 공장에서는 열 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선 안 된다, 노동 시간은 하루에 열 시간 이내로 한다, 공장에 들어간 뒤 처음 4년 동안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장 감독관을 두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었다.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는 이겼으나 심한 불경기가 닥쳐왔다. 군수 공업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거리에 넘쳐 흘렀으며, 30만 명의 제대 군인이 돌아와 직업을 찾아 헤맸으나 정부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오우옌은 그 이유를 인간이 기계에 의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현재와 같은 사회 구조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모



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그는 1839년, 미국의 인디애나 주 하아모니 마을의 토지를 사들여 그것을 뉴우 하아모니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가 언제나 꿈꾸어 오던 이상 사회의 실현을 꾀했다.

그가 구상한 계획을 보면, 농업을 주로 하고 공업이 이에 따르며,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재산도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화폐 대신에 노동권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실패로 끝난 채 2년 후에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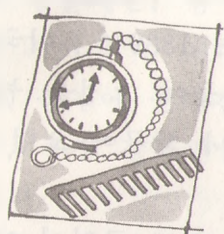
그 무렵, 그는 자기가 생각해 온 일들을 책으로 정리하여 그가 꿈꾸고 있는 이상 사회에 <계획 경제 협동 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834년, 그랜드 내셔널(전 노동 조합 협동 대연합)을 결성했으나 이것도 잘 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때부터 1858년 11월 17일, 87세로 사망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무렵에 흐르고 있던 사조보다 훨씬 앞선 그의 이상은 그 후의 노동 운동이나 협동 조합 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어, 오늘날에는 그가 생각한 많은 것이 실현되고 있다.

이리하여, 한평생 자신의 이상을 위해 온 정력을 다 바쳤던 로버트 오우엔의 이름은 노동 운동 역사상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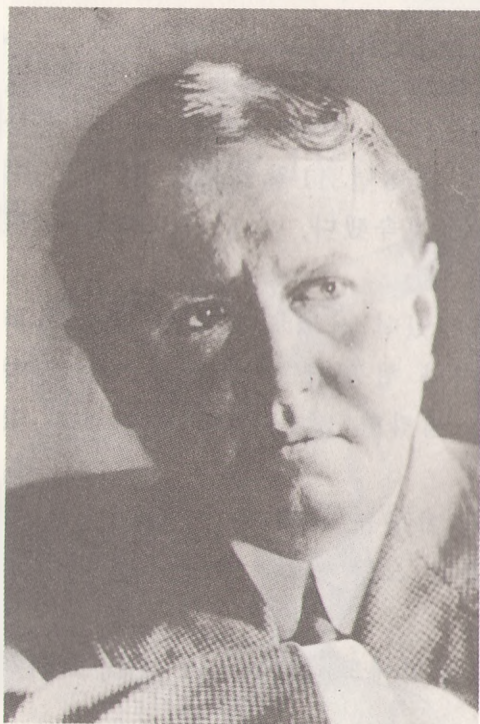
오우 헨리 (1862~1910)

미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

오우 헨리는 미국의 작가이다. 그는 주로 뉴우요오크를 무대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담담하면서도 유우머러스하게 그려 <도시 소설>의 선구자가 된 사람으로서,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너 포우터이다.

그는 1862년 9월 11일, 노오드캐롤라이나 주 길포오드

오우 헨리



의 그리인즈버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작은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로서, 사교적이고 환자들에게 친절하여 매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으나, 발명하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가계를 돌보지 않아 살림이 구차해졌다.

그리하여, 15세 때 학교를 중퇴한 오우 헨리는 같은 마을에 있는 약방에 취직했는데, 그 때부터 그의 파란 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었다.



오우 헨리는 약방 점원을 그만두고 텍사스로 가서 목장 일을 하다가 다시 오스틴으로 이주, 그 곳에서는 어떤 제약 회사에 취직하여 약 2 개월 가량 근무했으며, 다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 회사와 토지 관리 사무소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1887년에 그는 예술 에스테스라는 19세의 마흔세 곱고 상냥한 처녀를 만나 결혼을 했다. 오우 헨리는 이 무렵부터 예술의 권유에 의해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결혼 후, 오우 헨리는 은행에 취직하여 출납계원으로 일을 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다가 운영난으로 적자만 안고 폐간했으며, 다시 《휴우스턴 포우스트》라는 신문사에 기자로 취직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꾸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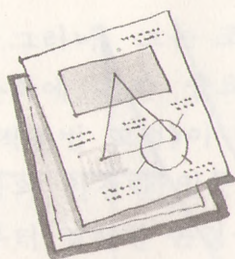


갔다. 그러나, 전에 근무했던 은행으로부터 공금 횡령죄로 고발을 당하여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아내의 병으로 인하여 보석이 된 후, 뉴우오울리안즈와 온두라스로 피해 다니다가 다시 구속되어 3년 남짓한 옥중 생활을 하였다.

교도소 생활은 비참한 것이었지만, 그는 옥중에서 계속 소설을 썼으며, 출옥 후에는 뉴우요오크로 가서 《워얼드》지 등에 단편 소설을 기고하였다.

그의 소설은 모파상의 영향을 받아 풍자와 기지와 애수가 감돌고 구성과 화법이 교묘하여 비상한 인기를 모았는데, 작품 생활 10년 동안에 280편이나 되는 많은 소설을 썼다.

죽은 지 70여 년이나 되는데도 조금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오우 헨리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오 일 러 (1707~1783)

18세기 수학의 중심적 인물

레오나드 오일러는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18세기 수학의 중심적 인물이며, 미적분의 발전과 정수론(整數論), 기하학, 대수학 등의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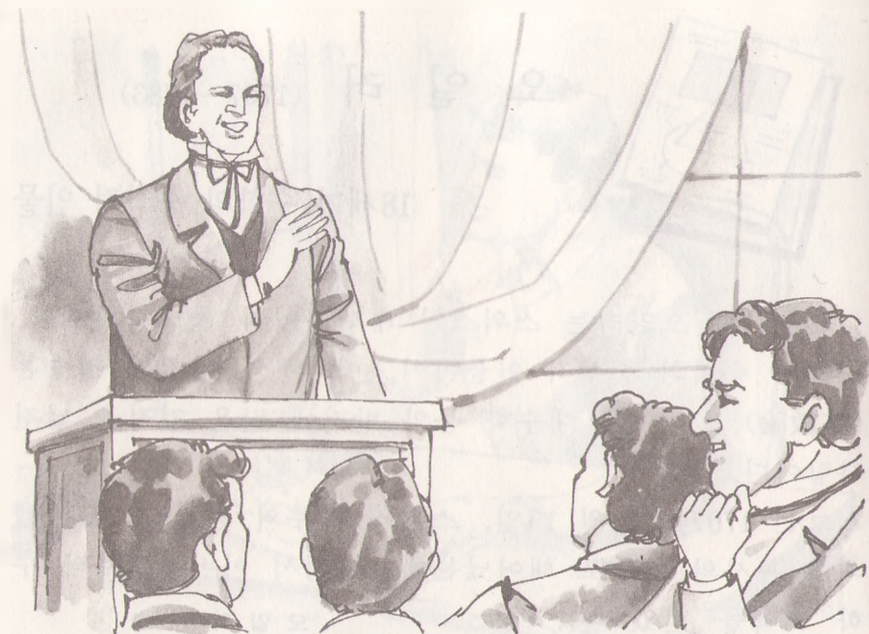
그는 1707년 4월 15일, 스위스 북부의 공업 도시 바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수학 교육을 받았으며,

바젤 대학에 입학해서는 신학을 배웠으나, 당시 권위 있던 수학자 베르누이에게 수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수학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오일러는 1727년, 러시아의 황제 에카테리나 1세의 요청에 의하여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던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으며,

오 일 러





1730년에 페테르스부르크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되고, 1733년에는 수학 교수까지 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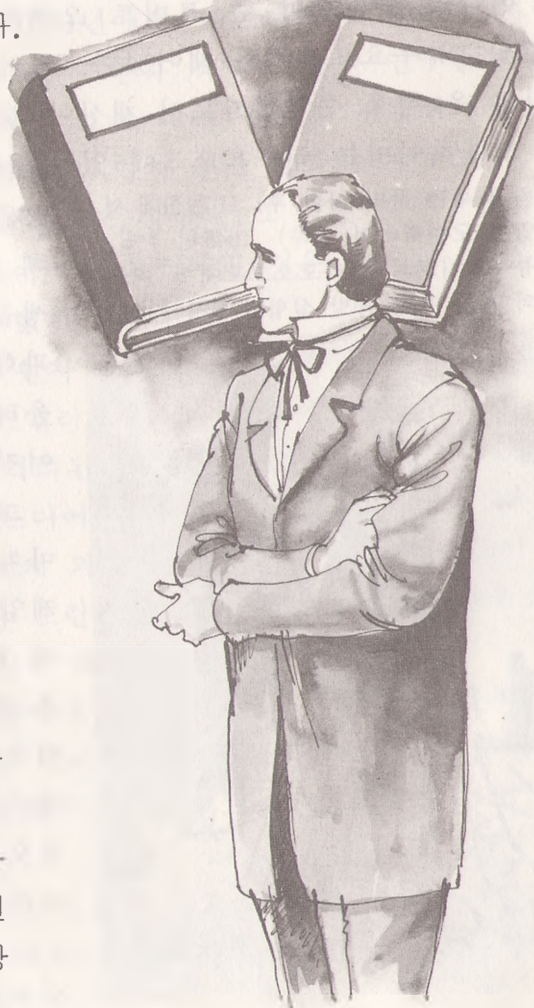
그 후 1741년, 오일러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초청을 받아 베를린에 가게 되었고, 1755년에는 파리의 과학 예술원에 한 논문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그의 일련의 방정식에서 이루어지는 유체 역학(流體力學)의 일반 방정식으로 유체 요소의 질량과 그 위에 작용하는 압력과 요소가 운동하고 있는 한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힘을 유체 요소의 가속과 관계지었다.

1766년, 오일러는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의 수학부장이 되어 연구에 몰두하다가, 페테르스부르크 과학 아카데미의 총재가 되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무렵부터 오일러는 실명(失明)하게 되어 저술은 물론 모든 활동이 부자유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여 미적분학에 관한 중요한 교과서를 펴냈다. 《미분법 교정》과 《적분법 교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대수학의 완전한 입문》이라는 훌륭한 책을 펴냄으로써 학계로부터 열렬한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뉴우튼의 입자(粒子) 역학을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전개했다.

또, 그는 <강체의 운동 이론>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강체의 역학을 취급하고, 강체의 운동을 질적 중심의 운동과 이 점(點)의 주위의 회전과를 분해하여 운동의 일반 방정식에 도달하였다.

오일러는 1783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사망했는데, 그의 취미와 흥미는 정말 다양하여 수학, 퍼즐, 광학, 열학, 음향학, 음악, 자연과학,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오펜하이머 (1904~1967)

미국의 원자 물리학자

미국의 물리학자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04년 4월 22일, 뉴우요오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도이칠란트에서 이민 온 직물 수입업자로서 재산이 많았다.

오펜하이머는 뉴우요오크에 있는 윤리 문화 학원을 거쳐 원자 폭탄 폭발 실험 후, 그 현장에서 있는 오펜하이머(왼쪽) 1945년 7월, 뉴우멕시코의 알라모고도에서 최초의 원자 폭탄 폭발 실험이 실시되었다.



1922년에 하아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의 일생을 통한 문학, 예술, 과학에의 흥미와 관심은 윤리 문화 학원에서 닦여진 것이다.

그는 하아버드 대학을 마치고 영국으로 유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자유로운 연구 생활을 하다가, 1933년에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교육자로서, 또 연구가로서 특출한 능력

과 희귀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강의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강의에 지장을 가져오곤 했으며,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모습은 너무도 진지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한 기분이 들게 할 정도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론 물리학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랬던 것을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오펜하이머이다. 1926년에서 1942년까지 미국의 여러 과학자들은 그제서야 겨우 양자 역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오펜하이머는 그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시도, 우주선 샤워의 생성 및 양자 전기 역학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핵력에 의한 중간자의 성질과 그 역할을 구명했다.

과학자로서 오펜하이머가 유명해진 것은 원자 폭탄의 개발에 지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여러 원자 물리학자들과 함께 뉴멕시코의 한 고원에 있는 로스앨러모우스 연구소에 가족과 함께 수용되어, 일반인과 격리된 상태에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1945년 7월 16일, 드디어 원자 폭탄을 제조했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 과학사에 영원히 기록될 인물이 되었으며, 1947년에는 프린스턴 고등 이론 물리학 연구소의 소장 및 원자력 위원회 자문 위원회 의장이 됐다.

그러나 1954년, 불명예스럽게도 비밀 누설죄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1963년, 당시의 미국 대통령 존슨으로부터 미국 원자력 위원회의 헬미 상을 받고 다시 프린스턴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그는 그 후 1967년 2월에 암으로 죽을 때까지 젊고 우수한 물리학자들을 위해서 관리자로서, 전문가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옥타비아누스 (기원전 63~기원후 14)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14년까지 41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이며, 어머니 아티아는 케사르의 누이동생인 율리아의 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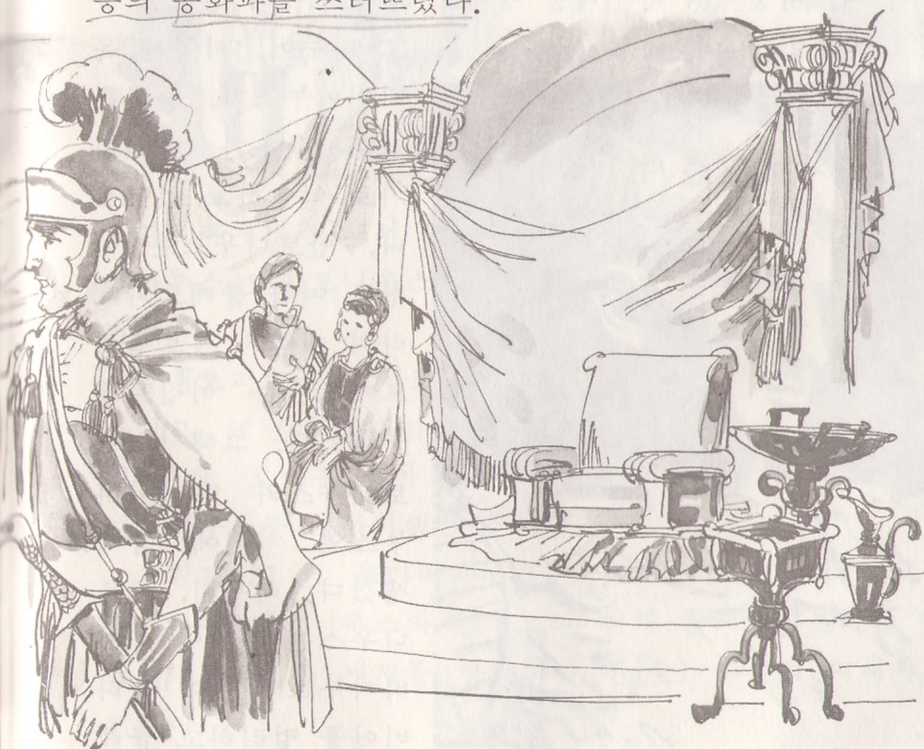
케사르는 로마 공화국의 통령이었는데, 나중에는 원로원에서 독재관으로 임명됐다. 그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그의 반대파들은 그가 공화제를 폐지하고 황제가 되려 한다는 구실로 그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으며, 결국 반대파에 의해 암살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케사르가 살아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으며, 기원전 46년 케사르가 아프리카를 원정했을 때 그를 수행하기도 했다.

기원전 45년, 공부를 하기 위해 두 친구와 함께 일리아스로 보내졌으나, 케사르가 암살됐다는 기별을 듣고 즉시 이탈리아로 돌아와, 케사르의 유언에 따라 그의 양자가 되었다.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법무관의 지위가 주어졌으며, 다시 군대의 지지를 얻어 통령이 되었고, 기원전 43년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등과 함께 삼두 정치(三頭政治 : 세 사람이 함께 하는 정치)를 시작하여 키케로, 브루투스, 카시우스 등의 공화파를 쓰러뜨렸다.



기원전 40년,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누님인 옥타비아와 결혼했다. 옥타비아는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라는 사람의 미망인으로 대단히 아름다웠으며, 또한 우아하고 분별 있는 부인이었다.

안토니우스는 전 부인인 풀비아를 여윈 지 아직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다. 로마의 법률로는 10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원로원은 특별히 이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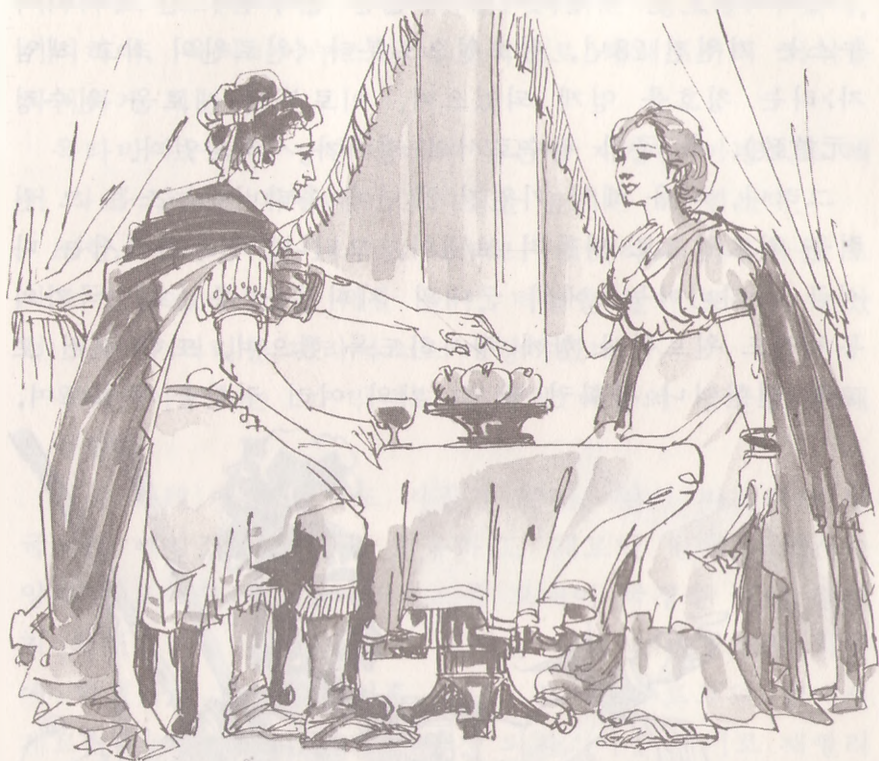
기원전 36년, 옥타비아누스는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던 레피두스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 내고, 이탈리아는 물론 서방측 일대에 걸쳐 유일한 실력자가 되었다.

이 때, 지중해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로마의 영토를 둘

옥타비아누스의 석상



로 나누어,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지배하기로 약속하고 있었으나,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사로잡혀 로마보다는 이집트를 두둔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사이에 틈이 생겼다. 더우기, 안토니우스는 부인인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를 멀리하고 클레



오파트라에게 반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인연을 끊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사랑해서 가까이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강대하였던 이집트 왕국을 다시 한 번 세우기 위해, 로마를 로마인의 손으로 치게 하려는 흥계에서 안토니우스를 가까이했던 것이다.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의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여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멸망시키고 로마 세계를 장악하여 전(全) 제국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리하여, 전 이탈리아의 유일한 실력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8년, 원로원으로부터 <원로원의 최고 책임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새로운 원수정(元首政), 즉 국가 원수로서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는 그 권력을 원로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원로원에서는 다시금 옥타비아누스에게 군대의 지휘권을 주었고, 국가의 통치권도 원로원과 함께 행사하도록 했으며, 또한 선전 포고의 권한이나 강화권 및 그 밖의 여러 권한을 주었으며,



아우구스투스(존귀한 사람이라는 뜻)라는 칭호를 주었다. 이리하여, 옥타비아누스는 실질적으로 황제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강한 군대와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도덕심을 높이는 데 힘썼다.

또한, 로마 시를 14구로 나누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벽돌을 깔아 포장해 놓았던 로마의 거리를 대리석으로 개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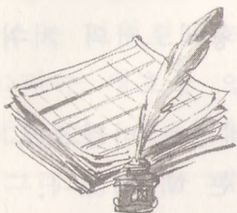
옥타비아누스는 그 밖에도 문학과 예술의 발달을 위해 노력했다.

외정(外政)에 있어서도 기원전 20년, 앞서 파르티아 왕국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회복하고, 게르만 인에 대해서는 양자인 드루수스와 티베리우스를 보내어 국경을 엘베 강까지 확대시키는 등 끊임없이 원정을 감행하여 영토의 확장에 힘썼다. 그러나 기원후 9년, 토이토부르크의 숲에서 게르만 군에 의하여 타격을 입게 되자, 이를 계기로 재빨리 정복을 중지하고, 라인과 다뉴브 두 강을 경계로 하여 게르만과 강화를 맺었다.

이리하여 <로마의 평화>는 이룩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존중이 집중되었으며,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에서 그와 <여신 로마>를 위해 신전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옥타비아누스는 훌륭한 정치가인 동시에 또한 뛰어난 군략가요 용감한 장군이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가 언제나 신조로 삼은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말과 같이 매사에 신중하고 또한 착실한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로마 제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 올려 놓았던 것이다.



와 일 드 (1854~1900)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창한 작가

19세기 말의 영국 문학계에 예술 지상주의 운동을 일으킨 오스카 핑겔 오우플레헨타이 윌즈 와일드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며 시인이다.

그는 1854년 10월 16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이자 고고학자였고, 어머니는 시인이었다.

그는 더블린 대학에서 3년간 공부했는데, 재학중 괴이

와 일 드

하고 기발한 행동과 문장으로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곤 했다.

23세 때, 그는 런던으로 나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으며, 이탈리아의 도시 <라벤나>를 주제로 한 시를 써서 신인상을 받았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기조로 한 탐미주의(耽美主義)를 주창하며 그 지도자로 자처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작가 생활로 들어가 시집을 출판,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1882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영국의 문예 부흥과 신 이교주의(異敎主義)에 관한 강연을 여러 차례 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2년 후, 그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희곡 《벨라, 또는 허무주의자》를 스스로 감독, 상연하였으나 실패하여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

1884년에 결혼하고, 3년 후에는 《우먼즈 워월드》지의 편집 책임자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동화 《행복한 왕자》를 출판, 호평을 받았고, 1889년부터 그의 유일한 장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집필, 2년 후 단행본으로 출간함으로써 일약 유명 작가가 되었다.

그 후, 와일드는 <비평이란 문학의 독립된 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한 비평서 《예술론》을 간행하여 비평의 중요성을 논술하였으며, 1892년부터는 극작 활동을 활발히 하여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1892), 《대수롭지 않은 여인》(1893), 《거짓에서 나온 성실》(1895) 등을 집필하였다.

날카로운 감각과 기지(機智)로 화려한 인기 작가가 된 와일드는 매사에 적극적이며 건실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1895년에 동성 연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였다.

출옥 후 그는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 옥중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옥중기》 《리딩 감옥의 노래》 등을 발표하였으나, 명성이 떨어져 인기를 모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프랑스로 이주, 쓸쓸한 생활을 보내다가 1900년 11월 30일,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말았다.



와 토 (1684~1721)

로코코의 대표적 화가

장 앙트완느 와토는 프랑스의 화가로서, 뛰어나게 아름답고 화려한 가운데 애조를 띤 <아연화(雅宴畵)>를 처음 시작했으며, 18세기 프랑스의 회화와 로코코 회화의 지도자적 구실을 하였다.

와토는 1684년 10월 10일, 프랑스의 발랑시엔느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1702년에 파리로 나간 와토는 클로드 지요 밑에서 그림 공부를 했다. 당시, 지요는 무

와토 작 <시테일 섬의 출범>



대 의상과 무대 장치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와토는 클로드 오드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은 젊은 와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오드랑을 통해서 와토는 부드럽고 섬세한 가는 선으로 인체를 묘사하는 법을 익혔다.

더우기, 오드랑은 룩상부르 궁전 화랑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와토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마리 드 메디시스의 생애를 그린 루벤스의 유명한 연작화(連作畵)를 연구할 수 있었다. 그는 그 그림들을 통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1709년, 기대하던 로마 대상 수상에 실패하고 2등에 머물게 되자 실망한 와토는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그는 군사적 소재의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와토는 곧 제자 파테르와 함께 다시 파리로 나왔다.

1712년, 와토는 아카데미의 준회원이 되었고, 5년 후에는 정회원이 되었다.

그는 은행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피에르 크로자를 알게 되어, 그의 별장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다. 거기에서 그린 《화려한 연회》는 파리 상류 사회의 전원 생활 유행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걸작이다. 당시는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사상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크로자의 친구들의 모임을 보고 그린 《음악 수업》도 아주 우아한 그림이다. 이로써 와토는 화려한 가운데 애조를 띠는 <아연화>를 창시하여, 18세기 프랑스 회화의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와토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여기저기에 옮겨 살았다. 한 곳에서 싫증이 나면 딴 곳으로 갔고, 좋은 곳이 나타나면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다. 만년에는 파



리에서 에드몽 제르생이라는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다.

1719년에 그린 《질르》라는 작품은 평범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긴 작품이다. 같은 해 런던에 갔으나, 기후 때문에 건강을 해쳤다. 그러나, 영국의 많은 화가들이 와토에게서 그의 양식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는 18세기 영국 회화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와토는 풍속화, 전쟁화 등 약 3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으나, 그림에 그의 서명이 없어 연대적인 연구가 어렵다.

그는 1721년 7월 18일,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와 트 (1736~1819)

증기 기관의 발명자

‘여기에 그 이름을 남겨 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문화가 인류 평화에 빛을 주는 한 이 이름은 영구히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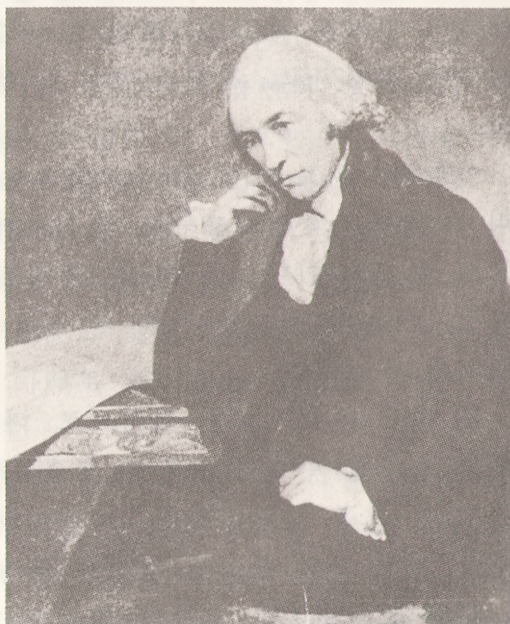
이 글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셔져 있는 제임스 와트 상(像)의 대석(臺石)에 새겨 놓은 문장의 한 귀절이다.

증기 기관을 발명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제임스 와트는 1736년 1월 19일,

와 트

스코틀랜드의 서해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그리닉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 도시의 명예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배를 만드는 배목수로서 작은 작업장도 갖고 있었다. 와트는 그의 여섯째 아들이었는데, 위의 다섯 형들은 어려서 사망했다.

그 역시 어렸을 때



는 몸이 약했으므로,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학교에 들어갔다. 학교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고, 더우기 몹시 수줍음을 타서, 훗날 그토록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고는 부모와 선생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내성적인 와트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거나,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목수 연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그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아버지는 곧잘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의 손가락 끝에는 재산이 붙어 있다.”

아버지는 그를 훌륭한 기술자로 길러서 자기의 뒤를 잇게 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와트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학에 보내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와트가 17세 때, 어머니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도 시원치 않아서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와트로서는 대학에 진학할 희망이 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듬해, 와트는 친척의 도움으로 글래스고우로 일을 하러 떠났다. 글래스고우는 에든버러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오래 된 도시이다. 공장다운 공장도 없는 조용한 읍이었으므로, 와트의 재능을 기를 수 있을 만한 일은 좀처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19세가 되자, 그는 런던으로 나가서 존 모오건이라는, 제도 용구를 만드는 공장의 견습공이 되었다. 손재주가 좋은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3,4년이 걸려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을 겨우 1년 동안에 완전히 습득했다.

1756년, 와트는 고향인 그리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글래스고우로 가서 글래스고우 대학을 상대로 하는, 제도 용구를 만들거나 수선을 하는 가게를 열었다. 손재주가 있을 뿐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학에 있어서도 비록 독학으로 공부를 했을망정 전문가에 못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일을 부탁받더라도 훌륭하게 해 내서 교수나 학생 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냈을 뿐 아니라, 더 한층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일에 대한 이러한 열의와 연구심은 와트를 단지 한 사람의 기술자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마침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로 키워 놓았던 것이다. 드디어, 그의 운명을 결정할 증기 기관과 씨름할 기회가 찾아왔다.

1763년의 어느 날, 그는 글래스고우 대학에 있던 뉴우코멘 기관의 모형을 수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기관은 그 무렵에 영국 국내의 여러 탄광이나 광산의 갱내에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 와트는 이 기관을 수리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결점을 발견했다.

뉴우코멘 기관은 실린더에 뜨거운 증기를 보내서 그 힘으로 피스톤을 들어 올리고, 다음에 찬물을 실린더에 부어 그 속에 증기를 응결시키면, 그 곳에 진공이 생겨서 피스톤이 대기의 압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같은 실린더를 식힌다든지 데운다든지 하기 때문에 증기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간도 낭비된다. 모처럼 뜨거워진 증기의 힘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며, 물을 데우기 위한 석탄의 낭비 또한 크다.



게다가, 속도도 느려서 한 번 피스톤을 아래위로 왕복시키는 데 몇 분이 걸리므로, 큰 광산의 배수를 하기에는 적당한 기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와트는 증기와 시간의 낭비를 없애고 좀더 능률이 좋은 기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765년 5월의 어느 일요일, 그는 글래스고우 목장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 때, 문득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실린더 속의 뜨거운 증기가 피스톤을 밀어올리면, 그것을 다른 장치에 이끌어들여 거기서 냉각시키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같은 실린더를 가열한다든지 냉각시킨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뜨거운 상태로 보존할 수가 있다. 시간과 석탄의 낭비도 막게 되는 셈이다.’

와트가 즉시 실험을 해 본 결과는 그가 예상했던 대로였



다. 증기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생각시키는 장치를 복수기(復水器: 콘덴서)라고 불렀다. 그리고, 열려 있는 실린더의 머리를 피스톤이 지나는 구멍만을 남겨 놓고 막아 버리고, 대기의 압력 대신 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밀어 내리는 방식으로 꾸몄다.

이렇게 하면 대기의 기압은 지면 가까이에서 1기압으로 정해져 있으나, 증기의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 몇 기압이라도 높일 수 있으므로 뉴우코멘 기관보다도 훨씬 힘을 내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와트의 새로운 증기 기관에 관한 이론이 탄생했으나, 막상 실행에 옮겨 보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와트가 모든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원동기를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그로부터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눈물 나는 노력과 고생을 겪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로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몽땅 써 버린데다가 많은 빚을 져서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다. 그래서, 한때는 측량 기사가 되어 생활을 근근히 지탱하기도 했다.

그 무렵, 마음이 약한 그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던 아내 마아거릿마저 사망함으로써 그는 모든 희망을 잃고 말았

다.

그 때, 와트의 한평생을 통한 협력자가 된 매튜 볼튼이 나타났다. 그는 돈 많은 공장주로서 소호에 큰 기계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와트가, 그의 이해 관계를 초월한 협력에 격려를 받아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증기가 새지 않는 증기 기관을 만드는 데 성공하여 마침내 특허를 얻은 것은 1769년의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낸 초기의 와트의 기관은 피스톤이 실린더 속을 위아래로 운동하는 것으로서, 배수용 펌프나 도가니에 바람을 보내는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했다.

그래서, 볼튼의 권장을 받아, 어떤 기계의 원동기에도 쓸 수 있는 방식을 생각했다. 먼저, 피스톤의 양쪽에 증기를 교대로 보내 주는 방식을 고안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만능식 증기 기관을 완성한 것이다. 그것은 훨씬 뒤인 1780년부터 1784년에 걸쳐서의 일이었다.

이 원동기의 발명은 순식간에 수차(水車)로 변해서, 방적 공장을 비롯해서 온갖 산업에서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간단한 수공업에 의존하던 생산에서, 단번에 근대적인 대공업에 의한 생산으로 전환하는 토대가 되어, 영국의 산업 혁명은 바야흐로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듯이 와트가 증기 기관을 발명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까지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 큰 뜻을 지니고 있다.

만년의 와트는 여유 있는 생활로 이어졌으며, 83세의 생애를 조용히 마쳤다.



王安石 (1021~1086)

송나라의 정치가

당나라가 농민의 커다란 반란으로 인하여 907년에 멸망하게 되자, 그 후 세상이 혼란에 빠져 몇몇 나라가 생겼다가는 망하곤 했는데, 후주(後周)의 장군 조 광윤이 부하들의 추대로 960년에 송나라를 세웠다.

송은 혼란에 빠져 있던 중국을 통일했고, 나라의 세력도 크게 발전했다. 이윽고 6대째 황제인 신종이 21세의 나이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를 세운 지 백 년쯤 지났을 때였다.



반산성 자리 왕안석은 만년에 이 곳에서 은거했다.

당시 송나라는 북쪽의 요, 서쪽의 서하 등 다른 민족이 자주 쳐들어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송나라는 병력을 지원병으로 충원하는 모병 제도(募兵制度)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으나, 다른 민족이 자주 쳐들어와서 전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군사가 늘어 나라의 재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신종은 정치를 혁신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마 광, 구 양수 등 늙은 신하들뿐이었다. 그 때, 신종의 눈에 띄는 사람이 지방의 벼슬아치로 있던 왕 안석이었다.

왕 안석은 장시 성의 린환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지방의 벼슬아치를 지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왕 익도 지방의 벼슬아치로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의 난징인 장닝 부에서 세상을 떠났다. 안석은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곧 지금의 카이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하였다.

3년 동안의 견습이 끝나고, 그는 지방의 벼슬아치가 되었다. 그 무렵의 벼슬아치는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안석은 반대였다. 이리하여, 지방의 정치에 열중하여 장닝 부의 지사(知事)가 되어 활약하고 있었다. 그 때, 신종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1067년 9월에 신종은 안석을 한림 학사로 임명했다. 안석은 다음 해 4월에 서울로 올라갔다. 안석은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대가 강해지게 하자면, 대지주와 고리 대금업자, 큰 상인들의 이익을 억제하고, 농민이나 영세 상인을 구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안석이 민중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종은 안석을 깊이 신임하고 부재상인 참지정사라는 높

은 벼슬자리에 발탁했다. 안석은 전부터 품고 있던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심의 기관으로 제치삼사 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했고, 이듬해에 재상인 동중서문하평장사가 되자, 왕 안석의 신법(新法)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법률을 잇달아 실시해 나갔다.

이 신법에는 청묘법, 지역법, 보감법, 모역법 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1) 청묘법은 정부가 농민에게 쉰 이자로 돈을 빌려 주는 제도였다. 흉년이 들거나 관혼 상제 등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농민들은 지주에게서 돈을 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자가 1 할이나 되는 비싼 이자였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여 땅과 집을 빼앗기고 망하는 농민이 많았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2푼(分)의 쉰 이자로 돈과 곡식을 빌려 주되, 봄에 빌려 간 것은 가을에 갚도록 하고, 가을에 빌려 간 것은 이듬해 봄에 갚도록 하여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정부의 재정 수



당시 송나라는 북쪽의 요, 서쪽의 서하 등 다른 민족이 자주 쳐들어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송나라는 병력을 지원 병으로 충원하는 모병 제도(募兵制度)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으나, 다른 민족이 자주 쳐들어와서 전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군사가 늘어 나라의 재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신종은 정치를 혁신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마 광, 구 양수 등 늙은 신하들뿐이었다. 그 때, 신종의 눈에 띄는 사람이 지방의 벼슬아치로 있던 왕 안석이었다.

왕 안석은 장시 성의 린환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지방의 벼슬아치를 지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왕 익도 지방의 벼슬아치로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의 난징인 장녕 부에서 세상을 떠났다. 안석은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곧 지금의 카이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하였다.

3년 동안의 견습이 끝나고, 그는 지방의 벼슬아치가 되었다. 그 무렵의 벼슬아치는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안석은 반대였다. 이리하여, 지방의 정치에 열중하여 장녕 부의 지사(知事)가 되어 활약하고 있었다. 그 때, 신종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1067년 9월에 신종은 안석을 한림 학사로 임명했다. 안석은 다음 해 4월에 서울로 올라갔다. 안석은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대가 강해지게 하자면, 대지주와 고리 대금업자, 큰 상인들의 이익을 억제하고, 농민이나 영세 상인을 구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안석이 민중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종은 안석을 깊이 신임하고 부재상인 참지정사라는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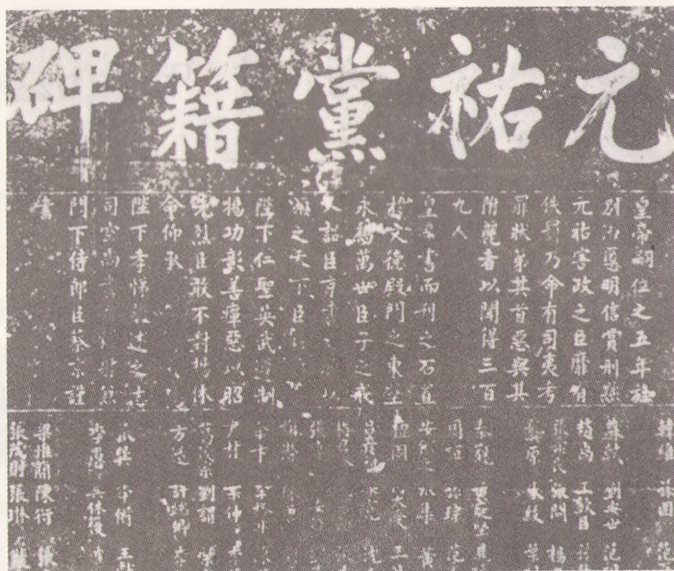
입도 늘게 했다. (2) 시역법은 청묘법의 도시판(都市版)이었다. 도시의 큰 상인의 비싼 이자를 쓰고 고통을 받는 중소 상인에게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는 제도였다. (3) 보갑법은 농촌에서 10호를 보(保), 50호를 대보(大保), 500호를 도보(都保)로 편성하고, 각각 장을 두어 치안을 맡아보도록 함과 동시에 농사일이 한가할 때는 군사 훈련을 시켜, 약체화한 용병 제도 대신에 군사력을 강화시킴과 아울러 양병비의 절약을 꾀한 제도다. (4) 모역법은 부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바치게 한 돈을 가지고 실업자를 싼 임금으로 고용하여, 그 차액을 국가 수입으로 하던 제도를 말한다.

왕 안석은 또한 ‘천하의 인재가 부족한 한 어떠한 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고치려고 했다.

이와 같은 왕 안석의 신법에 대해 대지주, 비싼 이자로 돈놀이를 하는 사람, 상인 들은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들



원 우 당 적 비
구법당인 309
명의 이름이 새
겨져 있다. 이
당적비에 실린
당인 일족들은
그 자손들도 탄
압을 받았다.



의 대표자인 사마 광과 구양 수 등은 안석을 맹렬히 공격했
고, 또한 신종을 제외한 황족과 귀족 들도 대개 이들 구법당
편을 들었다.

신법당과 구법당이 맹렬하게 다투게 되었으나, 안석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7년 동안 정치의 실권을 쥐고
신법을 계속 실시했다. 그 결과, 나라의 재정은 흑자가 되
었다.

안석은 1076년에 벼슬을 내놓고 장녕 부로 돌아왔다. 신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의 후임으로 재상이 되었다.

그러나, 1085년에 신종이 병으로 죽자, 선인 태후가 실
권을 쥐고 사마 광을 재상으로 삼고는 왕 안석의 신법을 매
장하고 말았다. 왕 안석은 그 이듬해에 65세로 세상을 떠
났다.

왕 안석은 문장가로도 유명해서, 당나라와 송나라의 8
대가(八大家)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即其子也
 王陽明先生
 年譜卷之五
 王陽明先生
 年譜卷之五

王陽明

(1472~1528)

중국 명나라의 유학자

왕 양명은 명(明)나라의 유학자이며 정치가로서, 주자학을 깊이 연구하여 평등주의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해서 당시 사람들의 사상 형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왕 양명의 이름은 수인(守仁), 자는 백안(伯安)이며, 호

왕 양명

는 양명이다. 저장(浙江)의 여요(餘姚) 사람으로, 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하였고, 할아버지는 도연명에 비교될 만큼 뛰어난 문인이었다.

왕 양명이 11세 때, 서당에서 스승에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고 묻자, 스승은 우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야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 양명은

“선생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배우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여, 스승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17세 때 결혼하였는데, 결혼하는 날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도를 닦고 있는 도사를 보고 자기도 그 옆에 앉아, 다음날 식구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결혼식도 까맣게 잊고 밤을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21세 때 주자학을 공부하게 되어, 풀잎 하나 나무 하나에도 이치가 담겨 있으며, 세상 모든 사물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마당에 있는 대나무 앞에 앉아 대나무를 응시하며 7일 밤낮을 앉아 있었으나, 진리를 터득하기는 고사하고 병만 들었다고 한다.

그는 주자학에 의심을 품고 시에 인생을 걸기도 하고, 때



로는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교에 마음을 쏟기도 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31세 때에 다시 주자학으로 돌아왔다.

주자학은 송(宋)나라의 주 희(朱熹)가 크게 완성한 새로운 유학을 말한다. 유교의 예(禮)를 근본 법칙으로 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데에서 천지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는 사상이다.

37세 때, 왕 양명은 용장(龍場)이라는 곳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35세 때 용장에 유배되어 왔었는데, 하인이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손수 나무를 해서 밥을 짓는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문명을 멀리한 원시 생활 속에서 혼자 생각하며 살다가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

왕 양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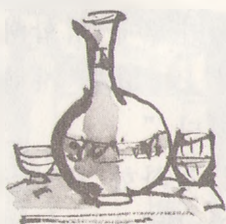
“아무리 공자(孔子)의 말이 옳아도 내 마음에 적합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며,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의 말이라도 내 마음에 적합하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정화한 자연스런 상태에서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깨달음을 그는 양지(良知)라고 불렀다.

다음 해에 그는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 다시 벼슬 생활을 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사상을 강의했으며, 각지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사상은 해방적인 평등주의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그의 저서로는 《왕문성공(王文成公) 전서》 《전습록(傳習錄)》 등이 있으며, 그의 학문을 양명학이라고도 한다.





王
왕

維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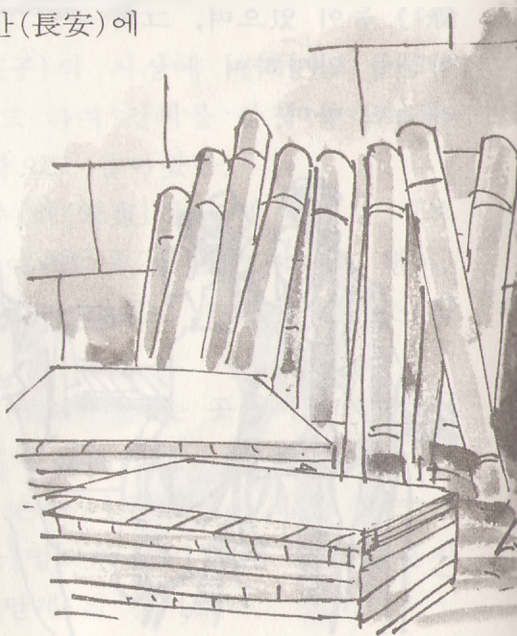
(699 ? ~ 761)

당나라의 궁정 시인

왕 유(王維)는 중국 당(唐)나라의 대표적 시인이며 화가, 음악가이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여 중국 자연시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뛰어나 남종 문인화(南宗文人畫 : 중국 회화의 2대 유파의 하나. 부드러운 선과 감정이 풍부한 산수화를 특색으로 함)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왕 유는 타이위안(太原) 사람으로, 자는 마훤(摩詰)이다. 어렸을 때부터 시와 문장에 뛰어났고, 15세 때 당나라의 수도 창안(長安)에 유학하여 귀족들 사이에서 천재 소년으로 그 이름을 날렸다.

19세 때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대악승(大樂丞 : 궁중 의식이나 음악을 감독하는 벼슬)이 되었다. 그런데, 오직 황제만 출수 있는 춤인 황사자(黃師子)를 추었다 해서 낮은 벼슬로 쫓겨가게 되었다. 그때, 쫓겨가면서 아주 홀륭



한 시를 썼다고 한다.

734년, 장 구령(張九齡)이 재상이 되자 그는 다시 발탁되어 우습유(右拾遺)라는 벼슬에 올랐다. 다음 해에는 감찰 어사(監察御史)가 되었다.

안 녹산(安祿山)이 난리를 일으키자, 그는 현종(玄宗)을 따라 촉(蜀)으로 피난가다가 포로가 되었다. 안 녹산의 난이 평정되고 그는 다시 창안에 돌아왔으나, 구속되어 옥에 갇혔다. 옥중에서도 많은 시를 지었는데, 높은 벼슬에 있는 동생 덕분에 풀려나게 되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현실 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淨土) 세계와 같은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의 자연에 대한 관조는 불교적인 깊이가 있으며, 그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자연시를 완성하였다.

그는 또 그림에서도 획기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 먹 하나만으로 산수화를 그렸는데, 진하고 흐린 차이로 입체감을 훌륭히 표현하여 남종 문인화의 시조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아 있는 그림이 거의 없고, 《복생수경도(伏生授經圖)》와 《망천도(輞川圖)》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는 만년에는 친구의 별장인 망천장(輞川莊)에서 마음껏 자연을 노래하고 그림을 그렸으며, 궁정 시인의 영예를 얻었다. 시집으로는 《왕우승집(王右丞集)》이 전한다.

학습 인명 사전 찾아보기 (숫자는 권수를 나타냄)

가리발디1	린 위탕8	빅토리아 여왕 14	와 트19	크롬웰26
간 디1	릴리엔탈8	사르트로14	왕 안식19	클레오파트라26
갈릴레이1	릴 케8	사마 천14	왕 양명19	키에르케고르26
게이릭삭1	릴 칸8	석가모니14	왕 유19	키이츠26
게 일1	마 네8	세네카14	왕 최치20	키케로26
고 겐1	마르코8	세로반데스14	웁스20	킹26
고 아1	마아샬9	세 잔14	우 탄트20	타고르26
고 호1	마야크 트웨인9	세익스피어14	울 프20	테니스27
공 자1	마젤란9	소크라테스15	워싱턴20	토스카니27
공쿠르 형제1	마호메트9	솔로몬15	워어즈워드20	토인비27
괴 테1	막사이사이9	쇼 팅15	웰링턴20	톨스토이27
구텐베르크2	말9	순 자15	웰 즈20	투르게네프27
그레섬2	말 로9	슈 만15	위 고20	투루만27
그림 형제2	매코오익9	슈베르트15	윌리엄 3세20	파가니니27
나이팅게일2	맥아더9	스위프트15	윌슨20	파브르27
나폴레옹2	맥더스9	스토우15	유 방21	파블로프27
난 셴2	엔 로9	스트라빈스키15	유 비21	파스칼28
넛세르2	엔 델10	스티븐슨15	유우리21	파스텔라크28
네 루2	엔델스존10	(조오지)15	유 종원21	파스퇴르28
넬슨2	오 네10	스티븐슨15	윌리엄21	파운드28
네 벨2	오넬리나니10	(R. L. B.)15	이 백21	패러데이28
네 자2	모리악10	시바이저15	이 세민21	퍼어킨28
누르하치3	모 방10	시벨리우스15	이 슬21	피델 벅28
뉴우튼3	모 세10	시트라우스16	입 섀21	페스탈로찌28
니체3	모오스10	시 톤16	자멘호프21	포스터28
다비드3	모 움10	실 러16	장 건22	포드28
다아윈3	모짜르트10	션 원16	장 자22	포코크너28
다 윗3	모파상10	아르키메데스16	잔다크22	포 우29
단 테3	몽고메리10	아리스토텔레스16	장 제스22	플로 (마르코)29
도스토예프스키3	몽테뉴10	아문센16	제 너22	푸시킨29
도 연명3	미 쉘11	아스카16	제퍼슨22	폴 턴29
두 번3	미추린11	아아크라이트16	조이스22	컷치니29
들 토4	미켈란젤로11	아우구스티누스16	존슨22	퓨들리치29
뒤 나4	밀 레11	아이젠하워17	졸 라22	프랭클린29
워 말4	밀 텐11	아인슈타인17	주 공22	프로이트29
듀우이4	바그너11	아펜젤러17	주 돈이22	프릭벤29
드 골4	바 울11	알데르센17	주 을23	플라톤30
드보르작4	바 이런11	안젤리코17	주 칼23	플레밍30
들라크르와4	바 하11	안 진경17	주 자23	플로베르30
드바시4	발레리12	안토니우스17	주 네23	플루타르크30
디지엘5	발자크12	알렉산더 대왕17	중 자23	피카소30
다시니5	발 거이12	알 렌17	지 드23	피타고라스30
다킨즈5	버어뱅크12	알프레드 대왕17	지웃토23	하 엘30
라이트 형제5	베 델12	앙페르17	제셀린23	하아디30
라파엘로5	베드로12	애치슨17	자이코프스키23	하야비30
러더퍼드5	베르디12	애플리17	채 윤23	하이네30
러 섀5	베를렌12	앵더슨17	처어칠23	하이드거30
레쉴스6	베를리오즈12	앵베르18	체호프24	하이든31
레오나르도다6	베살리우스12	아스페르스18	치올코프스키24	한니발31
빈치6	베시머12	양 건18	칭기즈칸24	한 유31
렘브란트6	베에토벤13	양 자18	카루소24	함무라비31
로 망6	발레리13	양 제18	카 워24	허어셜31
로오렌스6	보들레르13	얼더우드18	카아네기24	허슬리31
록펠러6	보 일13	에드워드 3세18	카라트라이트24	헤 겐31
롤 랑6	룩카치오13	에디슨18	카일 대제24	헤라클레이토스31
롬 웰7	롤 타13	에머슨18	카잘스24	헤로도투스31
롯시니7	롤테르13	에 펠18	카프카25	헤르츠31
칸트겐7	롯데리13	예수 그리스도18	킨 트25	헤임웨이31
루빈시타인7	롯데리13	예이츠18	케네디25	헤 세32
루 소7	브라클스13	오비디우스18	케달 파사25	헨 델32
루우스벨트7	브라운13	오울트18	케사르25	헨델 켈러32
루 터7	(로버트)13	오 움18	케빈25	헬름홀츠32
르노와르7	브라운(K.F.)13	오우엔19	케틀러25	호라티우스32
리 델8	브라운(베르너13	오우 헨리19	코페르니쿠스25	호 머32
리빙스턴8	존)13	오일러19	코 호25	호오도론32
리스터8	브라크14	오펜하이머19	콜롬부스25	혹32
리 흥장8	브루투스14	윌타비아누스19	쿠베르탱26	휘트먼32
린 네8	비스마르크14	와일드19	루 크26	홉32
리드베르그8	비 제14	와 토19	뛰리 부인26	입포크라테스32

세 계 편/소년소녀

위 인 전 기

전 32 권



© KUM SUNG PUBLISHING CO., LTD. 1985 · 1987

개정신판발행 1985년 4월 30일
개정중판발행 1987년 11월 10일

발행인 김 나 준
발행처 (주) 금 성 출판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외 63
등록 1965. 10. 19. 제10-6호
전화(713)9651~8 우편번호121

제 판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삼화인쇄 주식회사
인쇄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삼화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태성제책 주식회사
제 지 계성제지 주식회사

정가 3,000 원

(본사는 출판물리 감정을 준수함)



삼국 통일의 명장
1 김 유 신



신라의 고승
2 원효대사



서역을 토벌한
3 고 선 지



해상 무역의 왕
4 장 보 고



한국의 발명왕
9 장 영 실



조선 중기의 학자
10 이 황



여성의 귀감
11 신사임당



해적을 무찌른 성웅
12 이 순 신



조선의 명필
17 김 정 희



대동여지도를 만든
18 김 정 호



조선 말기의 거목
19 홍선 대원군



한국 최초의 신부
20 김 대 준



항일 독립 운동가
25 안 창 호



항일 순국 의사
26 안 중 군



항일 민족 시인
27 한 용 운



민족의 사학자
28 신 채 호



고매한 문장가
5 최 치 원



고려의 시조
6 왕 권



목화씨를 들여 온
7 문 익 접



위대한 임금
8 세종대왕



《동의보감》을 쓴
13 허 준



북학파의 영수
14 박 지 원



천재 화가
15 김 홍 도



실학의 거두
16 정 약 용



조선 말기의 풍운아
21 김 옥 군



동학 혁명의 지도자
22 전 봉 준



국어학의 선구자
23 주 시 경



항일 독립의 혁명가
24 김 구



민족 음악가
29 홍 난 파



임진왜란 어린이의 빛
30 방 정 환



항일 순국 소녀
31 유 관 순



식량 문화의 시인
32 윤 동 주

소년소녀 위인전기 19 톨스토이
권말 특집 부록 : 학습 인명 사전



경주출판사